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18-02-01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제28권 제1호(2018년 봄) Vol. 208

인쇄일·발행일 2018년 3월 31일

펴낸이 국립국어원장

편집위원 남길임·박재현·이동은·이상혁·김윤종

기획·편집 김문오·이은민·홍규화

제작 (주)늘품플러스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27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1호·봄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1호·봄

차례

[특집] 언어 예절의 현황과 전망

가족 간의 언어 예절

— 호칭을 중심으로 9

채완

직장 내 의사소통의 양상과 개선 방향 27

전은주

군대 언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47

이관희

일반 사회(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예절 73

김태경



지금 이 사람

시, 그대를 듣는다

– 정재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89

정희창

문학 속 우리말

유배 죄인의 ‘만언(萬言)’, 상황과 처지를 그려 내다 97

염은열

삶과 우리말

말의 격랑으로 읽는 촛불 113

박명규

세계의 언어 사전

개방형 몽골어 웹 대사전 편찬 경과와 차후 과제 127

성비락

국립국어원 소식 141

특집

언어 예절의 현황과 전망

가족 간의 언어 예절

- 호칭을 중심으로

채완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에 《표준 언어 예절》을 펴내어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의 길잡이로 삼아 왔다. 그러나 가족, 친척 간의 언어 예절을 볼 때 현실과 떨어진 규범이 더러 눈에 띈다. 가족 구성원이 단출해지면서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예절을 배울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표준 규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막상 제시된 규범이 언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면 언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전통 예법에 맞으면서도 언중들의 사용 현실을 수용한 규범이 절실한 것이다.

언어 예절은 대상이 되는 인물을 부르는 호칭과 가리키는 지칭, 대화에 나오는 인물을 위상에 맞게 대우하는 경어법이 중심을 이루는데,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가족 친족 간의 호칭, 지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호칭과 지칭은 대부분 겹치므로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호칭으로 통칭한다.

첫째, 친족 호칭의 구분 기준을 정리한다.

둘째, 《한불자전(韓佛字典)》(1880)에 등재된 표제어를 통해 전통적인 호칭을 살펴본다.¹⁾

셋째, 우리말 호칭이 겪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원인을 살펴본다.

넷째, 위의 논의를 토대로 《표준 언어 예절》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2. 친족 호칭의 구분 기준

친족 호칭에는 어떤 사람이 부계 친족인지 모계 친족인지, 직계(直系)인지 방계(傍系)인지, 혼인에 의해 맺어진 인척인지, 본처의 자식인지 첩의 자식인지,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전남편의 자식인지, 입양된 자식인지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첫째, 직계와 방계의 구분이다. 직계란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한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직선으로 위의 조상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는 혈족을 직계 비속이라 하며, 이들을 총칭하여 직계 존비속이라 한다.

방계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들의 직계 비속을 가리킨다. 종조부모, 백숙부모, 조카, 종손자녀 등이 방계 혈족이다.

둘째, 세대의 구분이다. 세대의 구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촌수로서, 짝수인 촌수는 자기와 같은 세대이거나 짝수 세대 위아래를 나타내고, 홀수인 촌수는 자기보다 홀수 세대 위아래를 나타낸다.

셋째, 상대적 나이를 나타낸다. 같은 세대일 경우 화자와 청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세분된 호칭이 있다.

1) 《한불자전》의 친족어에 대한 내용은 채완(2009, 2013)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넷째, 성별의 구분으로, 화자 청자의 성별뿐 아니라 관계의 고리가 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는 ‘사촌’, 아버지의 여자 형제의 자녀는 ‘고종사촌’, 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자녀는 ‘외사촌’, 어머니의 여자 형제의 자녀는 ‘이종사촌’이다.

다섯째, 부계와 모계의 구별이다. 모계의 친족은 아버지 쪽 친족의 이름 앞에 ‘외(外)’를 붙여서 부계와 구별한다. 아버지의 어머니가 ‘할머니’면 어머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 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삼촌’이면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으로 구별하는 방식이다.

여섯째, 결혼에 의해 맺어진 인척의 구별이다. 남성의 경우 처의 부모는 ‘장인, 장모’라 하고, 나머지 친족은 ‘처형, 처남’처럼 ‘처(妻)’를 붙인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친족에 대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등과 같이 ‘시(媳)’를 붙인다.

일곱째, 적서(嫡庶)의 구별이다. 첩의 자식에게 ‘서(庶)’나 ‘얼(孽)’을 붙여 ‘서자’, ‘서출’, ‘얼형’ 등과 같이 부른다. 서자가 아버지의 본처나 본처의 자식을 부르는 호칭도 별도로 있었다.

여덟째, 여성이 전남편의 자식을 데리고 재혼할 경우, 새 남편이 전남편의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으며,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간 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의 새 남편을 부르는 호칭도 따로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후처의 자식이 특별히 구별(차별)되어 불리지 않았다.²⁾

아홉째, 입양 관계에 의해 맺어진 친족에 대해서는 ‘양(養)’을 붙여서 구별한다.

2) 《한불자전》에 등재된 표제어에는 일곱째, 여덟째와 같은 구분이 나타나지만 현대에는 첩을 두는 일이 없고 여성의 재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그와 같은 구별 호칭이 사용될 일이 거의 없다.

3. 《한불자전》을 통해 본 19세기 국어의 친족 호칭

박병호(2003:111)에 의하면 친족 호칭의 실제 관행은 당시에 작성된 유산 분재 문서, 재산 증여 문서, 계약 문서 등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문서에는 친자 간, 조손 간, 형제자매 간 등 당사자 외에도, 그 문서 작성에 증인 또는 문서 작성자로서 관여하는 동성(同姓), 이성(異姓)의 방계 친족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15세기에는 ‘손(孫), 질(姪), 숙(叔), 조(祖), 형(兄), 제(弟)’ 등에 동성, 이성과 촌수를 붙이고 있을 뿐이며 법제상의 중국식 친족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從)/당(堂), 재중(再從)/재당(再堂), 삼중(三從), 사중(四從)’ 등의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친족 칭호는 친계에 의한 구별 의식이 없었고 거의 4촌 이내의 근친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사촌이 최후의 근친이라는 관념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였다.

1880년에 간행된 《한불자전》에는 445개의 친족어가 실려 있다.³⁾ 그 범위가 9촌, 현조(오대조)에 이르고, 재혼 가족, 서족, 입양 가족 등 가족의 형태에 따른 호칭, 지칭들이 실려 있어 박병호(2003)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세분된 친족 호칭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략 4촌 이내, 상하 2대까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부계 직계 존속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은 다음과 같다. 외가 쪽 조부모는 부계 친족어 앞에 ‘외’를 덧붙여 만든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존칭, 비칭, 평칭 등을 구분하고 방언형도 구분하여 매우 세밀하게 뜻풀이를 하였다.⁴⁾

3) ‘아으, 아이, 아으’가 모두 ‘아우(弟)’를 뜻하는 표제형인데, 이처럼 표기만 다른 표제형들을 각각 별개로 헤아린 것이므로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숫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

4) 각 친족어의 자세한 의미는 채원(2013) 참조.

- (1) [조부]⁵⁾ - 한아버, 할아버양(방언), 할아베, 할아버니, 할아버, 조부
- (2) [조모] - 할미암, 할메, 할머니, 조모
- (3) [부] - 아바님, 아빅암, 아베, 아범, 아버니, 아버지, 아비, 가친, 부, 엄부, 엄친, 부친, 생부(生父)⁶⁾
- (4) [모] - 어매암, 어맘, 어메, 어멈, 어머니, 어미, 모, 모친, 생모(生母)

‘할마와 ‘한아버’는 당시에 이미 친족이 아닌 ‘늙은이’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계 비속과 그 가족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은 다음과 같은데, 표기법 외에는 거의 그대로 현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밋머느리’는 ‘미래의 시아버지 집에서 살며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지는 어린 소녀’라 하여 민머느리 제도를 서술하고 있다.

- (5) [아들] - 아들, 즈, 맛아들, 맛놈(長男), 장즈
- (6) [딸] - 딸, 맛년(長女)
- (7) [손주] - 손, 손즈, 손녀, 외손, 외손즈
- (8) [아들의 배우자] - 며느리, 즈부, 밋머느리(幼婦)
- (9) [딸의 배우자] - 사희
- (10) [손자/손녀의 배우자] - 손부/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호칭은 다음과 같이 화자 청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5) []는 기본 의미를 표시한다.

6) 한자 표기는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용한다.

- (11) [남성 화자: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형, 엄부형(嚴父兄)⁷⁾, 빅씨, 장형(長兄), 중형(仲兄)/형수
- (12) [남성 화자: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아오, 동싱/계수, 계수(季嫂), 데수(弟嫂), 아자면이
- (13) [남성 화자: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누님, 누의, 맛누의/매형
- (14) [남성 화자: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누의, 매(妹)/매부
- (15) [여성 화자: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형/진아즈비(眞叔)
- (16) [여성 화자: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아오, 동싱/진아즈비(眞叔)
- (17) [여성 화자: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오라버니, 오라비/오러미, 형
- (18) [여성 화자: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데)/올계

여성이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따로 실리지 않고 ‘데(弟)’에 대해 ‘남동생, 여동생’이라고 뜻풀이되어 있으나 호칭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18)과 같이 () 안에 표시하였다.

(15), (17)을 보면 ‘형’의 의미가 현대 국어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불자전》에 의하면 ‘형’은 ①남녀 각각 동성(同性)인 손위의 동기를 부르는 말, ②친족이 아닌 연장자에 대한 존칭어, ③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 ④손위의 시누이를 부르는 말(‘형님’⁸⁾의 형태로)이다. ②와 ④는 현대어와 같지만, ①과 ③은 다르다. 현대어에서 여성끼리는 ‘형’이라 하지 않고 ‘언니’라고 부르며, 오빠의 아내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⁹⁾ ‘새언니’라 부른다. 현대의 표준어에서 여성끼리 ‘형’이라 부르는 경우는 ‘형남’의 형태로 굳어져서 손위의 동서나 손위의 시누이를 호칭, 지칭하는 경우뿐이다.

‘언니’는 《한불자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19세기 말 무렵에 ‘언니’가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 2010:8)에

7) 큰형에 대한 경칭이다.

8) 이러한 용법의 ‘형님’은 표제어로는 실려 있지 않고 ‘식누의’ 항의 설명에만 나타난다.

9) 방언에 따라서는 언니나 올케를 ‘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다.

의하면 ‘언니’가 처음 나타난 사전은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한 《신자전(新字典)》(1915)인데, 같은 부모에게서 난 손윗사람을 ‘맏, 형, 언니’라 부른다고 하였다.

1920년에 출간된 《조선어사전》에서는 ‘언니’를 ‘유아가 ‘형’을 부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언니’가 당시에는 ‘형’의 유아어로서 남녀 모두가 동성의 손위 동기를 부르는 말이었다. ¹⁰⁾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 ‘형’은 남자끼리, ‘언니’는 여자끼리 부르는 말로 변하였다. 윤석중 선생이 작사한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 가사에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는 구절이 나와서 ‘언니’가 여성만의 호칭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진아즉비(형부, 제부)’와 ‘오러미(올케)’는 현대어에서 사라졌다. ‘오러미(올+어미)’는 단어 구성상 ‘오라비(올+아비)’와 평행적이다.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가족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 (19) [아버지의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빅부, 중부/빅모, 빅숙모
- (20) [아버지의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계부(季父), 삼촌, 숙부/숙모
- (21) [아버지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고모/고모부
- (22) [어머니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이모/이모부
- (23) [어머니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외숙, 외구(外舅), 외삼촌/외숙모
- (24) 부모의 남자 동기와 부모의 여자 동기의 배우자의 통칭 - 아자버니, 아자씨, 아즈빅암
- (25) 부모의 여자 동기와 부모의 남자 동기의 배우자의 통칭 - 아자먼이, 아지메암
- (26) [아버지 남자 동기의 아들/딸] - 종형, 종데, 스촌/스촌종미
- (27) [아버지 여자 동기의 아들/딸] - 고종씨, 닉종씨, 닉종스촌/고종미, 닉종미

10) 필자 주변의 60대 이상 서울 토박이 남성 화자들이 어렸을 때 형을 ‘언니’라고 불렀음을 증언하였다.

(28) [어머니 남자 동기의 아들/딸] - 외종씨()

(29) [어머니 여자 동기의 아들/딸] - 이종씨, 이종스촌/이종믹

(19), (20)과 같이 아버지 쪽 남자 동기의 호칭은 위아래를 나누지만 어머니 쪽은 하나로 통칭되었고, 아버지 쪽도 여자 동기는 위아래를 나누지 않았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같은 형태는 등재되지 않았다.

(28)의 ()는 전체 체계에 비추어 ‘외종매(外從妹)’가 들어갈 자리로 보이지만 《한불자전》에 누락되어 있어 빈칸으로 두었다.

(24), (25)의 ‘아자버니, 아자먼이’ 계열의 호칭은 19세기 당시 친가와 외가의 친족에게 두루 사용되고 있었다. ‘아자먼이’는 친척이 아닌 남에게도 쓴다고 설명되어 있어 19세기에 이미 친족어가 아닌 일반어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이 확인된다.¹¹⁾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과 그 가족의 호칭, 지칭은 다음과 같이 지금과 차이가 없다.

(30) [남자 동기의 아들/그 배우자] - 족하/족하며느리

(31) [남자 동기의 딸/그 배우자] - 질녀, 족하딸/족하사회

(32) [남성 화자: 여자 동기의 아들/그 배우자] - 칭질, 외칭(外甥)/칭질부

(33) [남성 화자: 여자 동기의 딸/그 배우자] - 칭질녀/생질서

(34) [여성 화자: 여자 동기의 아들/그 배우자] - 이질/이질부

(35) [여성 화자: 여자 동기의 딸/그 배우자] - 이질녀/이질서

(36), (37)은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들인데 대부분 호칭으로 쓰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대의 배우자 호칭인 ‘여보’는 남을 부르는 호칭으로 뜻풀이되어 있고, 부부간의 호칭은 따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¹²⁾

11) ‘아자버니’와 ‘아자먼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채완(2013)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2) 최근까지도 나이트 세대에서는 남의 앞에서 부부간에 서로 부르는 것이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36) [남편] - 남편, 남진, 남편네, 남군, 지아비

(37) [아내] - 안희, 마누라, 너즈, 네편네, 녀편네, 지어미, 처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호칭은 다음과 같다.

(38) [아내의 부/모] - 약장(岳丈), 장인, 가식아비, 외구(外舅), 빙부, 빙장/약모(岳母), 장모, 빙모

(39) [아내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처남/()

(40) [아내의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처형/동서, 인형(姻兄)

(41) [아내의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처데/동서, 인데(姻弟)

(42) [남편의 부/모] - 식아비, 식부/식어미, 식모

(43) [남편의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식)아자버니/동서

(44) [남편의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식아즈비/동서

(45) [남편의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식누의, 형님/()

(46) [남편의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식누의, 아기씨/()

(38)의 ‘외구’에는 ‘외삼촌’의 뜻도 있다[(23) 참조]. (39)의 ()는 ‘처남의 아내’, (45), (46)의 ()는 ‘시누이의 남편’에 해당되는데, 전통적으로 내외를 하는 상대이므로 호칭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호칭이 필요하게 되어 《표준 언어 예절》에서 각각 ‘처남댁, 처남의 댁’, ‘아주버님(손위), 서방님(손아래)’으로 정하였다.

현대어에서 시동생을 부르는 ‘도련님’과 ‘서방님’은 《한불사전》에 시동생이라는 뜻은 없고, 각각 ‘서민이 결혼하지 않은 양반의 자식에게 붙이는 경칭’(도련님), ‘서민이 아직 어린 양반에게 붙이는 경칭’(서방님)으로 뜻풀이 되어 있다. 《한불사전》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도련님, 서방님’이 시동생의

여겨 아이에 기대 불렀다. 참고로, 이규대 씨와 이자람 씨가 불렀던 ‘내 이름 예술야’(1984)에 [“예술야.” / 아버지께서 부르셔 / “예” 하고 달려가면 / “너 아니고 네 엄마.”]라는 가사가 있다.

호칭이 된 것은 19세기 말 이후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어에서 시누이의 호칭인 ‘아기씨’는 표제항에서는 ‘젊은 부인. 서민이나 하인이 양반 여성에게 붙이는 호칭’으로만 뜻풀이되어 있으나, ‘식누의’ 항에 ‘남편보다 나이가 적은 시누이’로 올라 있어 당시에도 시누이의 호칭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호칭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로 대가족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친족 간의 호칭, 지칭이 빠르게 사라져 가는 한편, 친족보다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촉이 더 많아지면서 일반 호칭의 부족한 부분을 친족어가 메꿔 가는 현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 직함에 민감하여 직함이 없는 남을 부를 때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렵다. 친족 관계가 아니면서 직함도 없는 남을 부르는 말이 없어, 그 자리를 ‘형, 언니,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친족어가 대신하거나, 아예 부름말도 아닌 ‘저기요’ 같은 말이 쓰이기도 한다. 직함 없는 연장자에게 쓰는 ‘어르신네/어르신’ 같은 호칭이 있으나 잘 사용되지 않는다. ‘어르신네/어르신’이 노인이라는 느낌을 줘서 듣는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으로 대우 받는 것이 존중되고 존경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소외되고 홀대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노인장(老人丈)’이 실려 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 형, 언니’ 등은 진작부터 일반 호칭으로 사용되어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일반어로서의 뜻풀이가 실려 있다. 이 중 ‘할아버지, 할머니, 형, 언니’는 지금도 친족어가 주된 기능이지만,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는 남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정작 친족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지 않고 ‘삼촌, 고모, 이모’ 같은 친족 지칭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친족어의 일반 호칭화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서, 최근에는 ‘삼촌, 이모, 언니’가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부르는 말로 자리를 잡았다. ‘이모, 언니’는 화자보다 나이가 더 많고 적은 것에 상관없이 사용된다. 부르는 사람이 몇 살인지는 문제되지 않고 상대를 대략 중년 여성으로 대우하면 ‘이모, 상대적으로 젊게 대우하면 ‘언니’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그러한 의미가 등재되지는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말들은 친척이 아닌 남을 ‘예사롭게,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뜻풀이되어 있다. 즉 이 호칭들은 조심해야 할 어려운 상대에게는 쓰기가 어려운 말로서, 그 빈칸을 ‘아버지/아버님, 어머니/어머님’이 메꾸는 추세다. 특히 티브이(TV) 방송에서 노년층의 일반인 출연자를 그렇게 부르는 일이 많은데, 부모를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를 남에게 쓴다는 것이 필자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방송을 보고 혹시나 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자기의 아버지/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뜻풀이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어느 틈에 ‘어머니, 아버지’가 남을 부르는 말로 사전에까지 등재되었단 말인가?

현대 국어의 경어법이 수직적인 권위보다 수평적 친근성을 표현하는 쪽으로 점차 변해 가는 것에 발맞춰 호칭도 존경보다는 친근성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표준 언어 예절》을 펴낼 당시에 성인이 부모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한 위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성인이 된 자녀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위상이 달라짐에 따른 변화도 감지된다. 아내의 형제자매는 ‘처남, 처형, 처제’와 같이 경칭이 불가능한 지칭을 그대로 호칭으로

쓰면서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도련님, 서방님, 형님,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¹³⁾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 자리를 ‘삼촌, 고모’가 대신하는 추세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

5. 《표준 언어 예절》의 개선 방향

《표준 언어 예절》은 언어생활이나 교육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해 주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서술에서 부족하거나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성차별적 요소도 눈에 띄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표준 언어 예절》에서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에 한정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부모와 자녀 사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어미’라고 할 수 있지만 손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13쪽)라는 서술이 있는데, ‘아버지’ 쪽 서술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버지에 관한 사항은 어머니 쪽을 보고 짐작한다든지 그 역으로 추측하게 해서는 안 되고 평행되게 서술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호칭을 알고자 할 때 해당되는 조항만 찾아보 고도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올바른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구별하여 부르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편이 좋겠다(15쪽). 예전에는 혼인 여부로 어른인지

13) 인터넷에서 ‘도련님, 아가씨’로 검색하면 이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호칭 개정 청원까지 있을 정도이다.

아닌지를 구별했지만 지금은 늦게 결혼하거나 비혼(非婚)¹⁴⁾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또 결혼한 사람만이 자녀를 갖는다면,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갖는다는 것도 불변의 규범은 아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에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서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자녀가 부모가 되었거나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어 호칭으로 대우해 주고 싶다면 ‘아들’을 ‘아들이나 딸’로 바꾸어 ‘손주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들이나 딸을 손주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열로 부르거나 직함으로도 부를 수 있다.’로 바꾸어 서술하면 충분하다.

5.2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친족어의 변천은 가족 제도나 혼인 풍속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박병호(2003:95-96)에 의하면 한국의 혼인 풍속은 16세기 무렵까지도 현재와 다른 ‘남귀여가혼속(男歸女家婚俗)’이었다고 한다. 즉 남자가 처의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고¹⁵⁾ 그 자손은 외가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본종(本宗)과 외친(外親)을 구별하는 중국식 친족 칭호와 달랐다고 한다. 내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외삼촌과 생질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니 호칭도 성이 같은 동종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법적(宗法的) 가족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남귀여가혼속’이 쇠퇴한 18세기 이후에 와서야 본종(同姓)과 이종(異姓, 外親)의 호칭이 확연히 구별되게 되었다고

14) 결혼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미혼(未婚)’만이 사전에 실려 있는데, 그러한 전제를 담지 않은 ‘비혼(非婚)’도 사전에 표제항으로 실려야 할 것이다.

15) 율곡 이이(1536~1584)도 어머니인 신사임당(1504~1551)이 태어난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한다. 처의 부모도 자기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고 부모로 섬겼으나 혼속이 달라지면서 호칭도 ‘장인, 장모’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부계와 모계를 엄격히 구별하는 친족어가 확립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다. 전통에 비추어 보나 현대의 생활 양식으로 보나 처의 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처부모를 부를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칙이되 ‘아버님, ‘어머님’도 쓸 수 있다.’(26쪽)고 한 서술을 ‘처부모를 부를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 원칙이되 ‘장인어른, ‘장모님’도 쓸 수 있다.’로 바꾸는 편이 적절하다고 본다.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서술과,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장안, ‘장모’라 할 수 있고, 처부모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27쪽)라는 서술은 남성 중심의 차별적 시각을 드러낸다. 처부모를 경칭 없이 ‘장안, ‘장모’라고 지칭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무례한 것이다. 부모는 친부모든 시부모든 처부모든 높이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으로, 유독 처부모에게만 평칭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5.3. 남편에 대하여

부부 중심의 핵가족 사회에서 가정 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호칭을 어떤 말은 옳고 어떤 말은 그릇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격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호칭이 권장된다는 정도로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언중들의 직관과 동떨어져 보인다’(32쪽).

5.4. 아내에 대하여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자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37쪽).

5.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동기간에도 혼인 여부를 호칭 변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44쪽).

손아래 올케에 대하여 ‘○○(자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하였는데(51쪽), 그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호칭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5.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손아래 시누이에 대해 자녀에 기대어 쓰는 ‘고모’라는 말을 지칭으로만 쓰고 호칭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아가씨, 아기씨’만을 규범으로 제시한 것인데(62쪽), 시누이가 나이 먹고 결혼하고 늙어도 ‘아가씨, 아기씨’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언어 감각에 맞지 않고, 또 이 말들이 예전에 하인이 상전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크다. 그 대안으로 ‘고모’라는 호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시동생을 부르는 ‘도련님, 서방님’도 같은 이유로 ‘삼촌’에 밀리는 추세다. ‘아가씨, 도련님’ 등을 규범으로 삼되 ‘고모, 삼촌’도 허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면 언중의 불편함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들의 자녀의 이름에 기대되 자녀의 이름을 생략하고 ‘아범, 어멈, 아버지, 어미’ 등으로 자녀를 부르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시동생과 시누이를 ‘삼촌, 고모’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모부(시누이의 남편)’, ‘외숙모(처남의 아내)’라는 호칭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5.7. 사촌에 대하여

‘나의 친가 쪽 사촌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아버지 사촌’, ‘아버지 고종사촌’, ‘어머니 사촌’, ‘어머니 고종사촌과 같이 지칭한다.’(109쪽)고 서술되어 있는데, 각각 전통적 지칭이 있다. ‘아버지 사촌’은 ‘당숙(堂叔)/종숙(從叔)’이며 그 배우자는 ‘모(母)’를 붙인 ‘당숙모/종숙모’다. ‘아버지의 사촌누이’는 ‘당고모/종고모’이고 그 배우자는 거기에 ‘부(夫)’를 덧붙이면 된다. 참고로 아버지의 6촌은 ‘재당숙/재종숙’이다. ‘당숙/종숙’이 나를 부를 때는 ‘당질(堂姪)/종질(從姪), 당질녀/종질녀’가 되고 당질의 배우자에게는 ‘부(婦)’를, 당질녀의 배우자에게는 ‘녀(女)’ 대신 ‘처(婿)’를 덧붙인다. 이처럼 체계화된 호칭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이 규범이 정비될 때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사촌’은 ‘외당숙/외종숙’이며 그 배우자는 ‘외당숙모/외종숙모’다. 그런데 아버지의 4촌 누이는 ‘당고모’라는 호칭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4촌 여형제에게는 이름이 없다. 형태상으로 ‘*외당이모/*외종이모’ 같은 호칭을 유추할 수 있지만 사전에서 확인되지 않고 실제 들은 적도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표준 언어 예절》에는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하며, 혹시 누락된 호칭 지칭이 있다면 찾아서 채워 넣어야 한다. 더러 설명과 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꼼꼼히 찾아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가족 간의 호칭, 지칭은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칭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데 표준 호칭과 다르다고 해서 한 가정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호칭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전통 사회에는 없었다가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난 사회에서의 호칭과는 문제가 다른 것이다. 적절한 호칭을 새로 만들어 보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오랜 기간 가정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호칭을 표준형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대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왔던 호칭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가 없게 되었으므로 필요할 때 찾아보는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실현되는 가족 친척 간의 호칭에 대해 몇몇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만으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가족 형태의 변화 양상을 폭넓게 포괄하고 전통적인 가정과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 걸맞은 가족 간의 언어 예절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과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편(2011), 《표준언어예절》.
- 박병호(2003), “여말선초의 친족의 칭호와 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44-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94-113쪽.
- 이은령 외 옮김(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파리외방전교회/펠릭스 클레르 리텔 지음, 《한불즈던》(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소명출판.
- 이응백(1989), “친척의 계보와 호칭”, 《국어생활》 제19호, 44-60쪽.
- 조선총독부 편(1920), 《조선어사전》.
- 蔡琬(2009) “19世紀の韓國語における親族語 -『韓佛字典』の見出し語を中心に”, 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會》, 東京 明石書店, 214-235쪽.
- 채완(2013), “19세기 한국어의 친족어 연구-『한불사전』 등재어를 중심으로”, 이은령 외(2013), 《한불사전 연구》, 소명출판, 313-339쪽.
- 梅田博之(2010), “韓國語のキョウダイ名について-再論”, 麗澤大學大學院言語教育研究科論集 《言語と文明》 8, 3-16쪽.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1880), 《한불즈던》(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C. Lévy, Imprimeur-Libraire, Yokohama.

직장 내 의사소통의 양상과 개선 방향*

전은주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서론

직장은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표준국어대사전》)으로, 직장인은 이러한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직장은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이익이 되도록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결국 직장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직장인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으로 직장 내 업무 수행 과정은 곧 직장인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직장 내 의사소통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직장 역시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직장인 간 대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발전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잘 수행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을 하여 더 높은 지위를 얻고

* 이 글은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직장 내 대화법(전은주 외, 2015)'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재구성한 것이다. 전은주 외(2015)는 용역 연구의 특성상 연구명이 지정되어 있어 '직장 내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구두 의사소통의 포괄적인 양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직장 내 의사소통'으로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를 바라는데 이처럼 직장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이든 구성원 간의 유대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전은주, 2013).

아레돈도(L. Arredondo, 2000)에 의하면 회사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의사소통에 사용하는데,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일의 약 89%는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회사원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업무 진행 대화, 상급자와의 대화, 동급자와의 대화, 하급자와의 대화, 직원 교육 실시, 문의 및 질의 청취, 상담, 회의 주제 및 참여, 발표, 전화’ 등을 들고 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에는 대화, 회의,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담화 유형이 있지만 이 중 직무 수행이나 직장인 간의 의사 교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화이다.

직장인들의 업무는 대부분 의사소통으로 진행되며, 절대 다수의 직장인이 직장 내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직장인의 의사소통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환경을 직장으로 한정하여 직장 내 의사소통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직장 내 의사소통의 특징

직장 내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직무 수행과 직장인의 직무 만족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직장 내 의사소통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역으로 직장인의 직장 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직장 내 인간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며 직무 만족도 역시 떨어져 적응이 힘들게 된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의 소통 방식의 차이는 그 사회의 소통 방식이 개인주의적인지 혹은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된다(Sanchez-Burks, 2002; Sanchez-Burks, Nisbett, & Ybarra, 2000). 김창대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조적인 상호 작용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여은호 외(2009)에서는 미국적인 개인주의 문화에서 관계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소통은 직장 생활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인식되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관계 중심의 소통 방식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 직장 생활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허상희(2011)의 연구에서도 직장 대화에서는 인간의 정(情)보다는 일의 정확성이 우선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대화 방식과 달리 직장에서도 예의를 중시하는 특수한 의사소통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조직 내 의사소통은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조직 내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배경과 연관되어 높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접화행을 들 수 있다. 간접화행은 위계 문화, 고맥락 문화와 연관된 화행으로 상대방의 체면 살리기 또는 발화 메시지의 공손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수신자의 간접화행에 대한 메시지 이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의도 전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세미(2015)는 금융 기관의 부서 내 직급 간 간접화행을 분석한 사례 연구로, 직장 내 의사소통에서 간접화행이 발생하는 상황과 직급 간 의사소통의 특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발화자가 팀장이고 수신자가 팀원인 경우에 간접화행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에 따른 간접 화법 사용의 결과 분석 시 주목할 점은 팀장이 발화자이고 팀원이 수신자일 때에는 팀장이 부탁, 요청, 지시 목적으로 발화 시 간접화행

발생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팀원이 발화자이고 팀장이 수신자일 경우 간접화행의 발화는 응답 목적의 발화 메시지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나머지 상황에서는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상하 직급으로 구성된 기업의 특성상 의사소통 대상별 직급에 따른 차이와 연관된 위계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화행의 사용은 자칫 대화 참여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업무 지시 목적이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인력에 대한 효율성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은 업무 효율성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 고맥락의 직장 문화 속에서 간접화행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경우,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자칫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의 갈등을 미래 불안 및 목표 의식 상실에 이어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든 요인으로 보고 있다(조범상 외, 2012).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인하여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의 갈등은 남녀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 변수가 추가되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면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은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직장 내 남녀 차별과 같은 문제나 서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신군재, 2013). 그러므로 우리나라 직장 내 의사소통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직장 내 의사소통의 실태

이 연구에서는 직장 내 의사소통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직장 내 의사소통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내용을 일차적으로 개발하고, 시범 조사(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수정한 설문 내용을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장 내 직급별, 성별, 세대별 의사소통의 양상과 직무 갈등, 언어폭력, 높임법, 호칭 등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①업무 회의 상황, ②업무 보고 상황, ③업무 지시 및 수행 상황, ④회식 상황, ⑤휴가 및 휴직 관련 상황, ⑥사적 대화 상황에서 문제 상황 발생 빈도,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유사 상황에서 겪은 일을 자유 기술할 수 있게 질문지를 구성하였다.¹⁾ 특히 직장 내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6개 각각의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를 불쾌하게 했던 직장 동료를 생각하고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직장 내 의사소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모두 150명을 표집하여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

3.1. 업무 회의 상황

직장 내 업무 회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갈등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자주 그렇다(10번 중 6~7번)’, ‘여러 차례 그렇다(10번 중 4~5번)’의 응답 비율을 합치면 39.3%에 달해, 직장 내 업무 회의 상황에서 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급자를 불신하는 경우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 전은주 외(2015)에서는 직장 내 의사소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개 상황별 조사 이외 직장 내 의사소통 교육 수요 조사, 조직 문화 검사 등이 함께 실시되었다.

2) 실태 조사의 결과를 담은 표, 그림은 한정된 지면으로 인하여 생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전은주 외(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 이 같은 의사소통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양상이 상급자를 설득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9.4%)보다는 뒤에서 불평하거나 체념하고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58%)가 더 많았다.

업무 회의 상황에서 응답자를 불쾌하게 했던 언행을 조사한 결과 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급자를 불신하는 언행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된 내용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될 수 있겠어?”/“그것도 모르냐.”, “어쨌거나” (말을 끊으며)/“내 업무이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아직도 빨리 못하고 있느냐.”/“여긴 ○○ 씨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내가 너를 관두게 만들 수 있어.” (협박)/“야, 이 바보야.”/“아 됐고 이렇게 해.”/“대리인데 아직도 그걸 못 하나.”/“그냥 하라는 대로 해.”/“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당신은 권한이 없는데.”/“다리 꼬냐 지금?”/“그건, 아니지!” 등의 무시 반응 “그냥 언니들이 참고 이해해.”³⁾/“밥값 좀 해라.”/“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왜 이렇게 못하니?”/“넌 알 필요 없다” 혹은 “넌 알 수가 없다.”/“나도 다 알아요.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지금 많이 부족해.”/“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어휴 널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등

3.2. 업무 보고 상황

업무 보고와 관련한 의사소통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35.3%에 불과하였고, 가끔 발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9.3%는 거의 매일(10번 중 8번 이상) 또는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호소하여, 면대면(face-to-face) 업무 보고 상황에서 상급자가 하급자 의견을 무시하는

3) 이하 직장 의사소통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여성 차별적 발언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직장 내 여성 차별적 표현은 4장의 직장 내 의사소통 양상 중 남녀 대화 상황에서의 문제에서도 지적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직장 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잘 보여 준다.

언행이 일상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0%가 상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보고 상황에서 응답자를 불쾌하게 했던 언행을 조사한 결과 상급자의 경청 부족, 질책 및 비난과 같은 의사소통 갈등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 네 마음대로 해? 시킨 대로 안 하고.”(지시를 내린 적은 없음)/“그런 말 듣지 못하였습니다.”(이미 말하였음)/“이거 다시 해.”/“거짓말하는 것 아냐.”/“그래서 결론이 뭐야?”/“그만하자. 내일 하자.”/“너 뭐하는 사람이니?”/“이 것도 못하냐.”/“생각 좀 하고 해라.”/자세히 설명하면 알았다 하면서 결국 다른 결론을 내림/직속 상사가 아니라서 사소한 상황이나 업무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혼을 내는 상급자/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님에도 상급자에게는 본인이 직접 보고 하겠다며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고 중간에 자꾸 개입하여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업무 보고를 불편하게 만든 경우/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하지 못하고 단어 사용 같은 사소한 것으로 트집 잡을 때/사소한 한 건 한 건 모두 보고하라고 할 때/전에 보고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들은 적 없다고 함/동일한 보고 상황에도 기분에 따라 응대가 다를 경우/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즉각 보고 안 했다고 질책할 때/비아냥거리고 제대로 제안이나 피드백을 주지 않음/끝까지 보고를 다 듣지 않고 화부터 내는 상급자/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눈을 마주쳐 주지 않는 상사(비언어로 무시하기)/누구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보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하급자/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본인도 모르는 개념의 실행 계획(액션 플랜)을 만들라는 상급자 등

3.3. 업무 지시 및 수행 상황

직장 내 업무 지시 및 수행 상황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갈등을 자주 겪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10번 중 6~7번), 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급자를 불신하는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업무 지시 및 수행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 양상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6%가 상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업무 회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체념하고 상급자 앞에서 의견을 내지 않거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불평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뿐이었다.

업무 지시 및 업무 수행 상황에서 응답자를 불쾌하게 했던 직장 상사의 언행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네, 네, 대답만 잘하지.”/“몰라 나도 몰라.”/“됐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그럼 아이디어 낸 사람이 제안해 볼까?”/“까라면 까야지,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자기주장을 해?”/“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그럼 잘 하든지.”/“네가 해 봐, 잘되는지.”/“네가 전문가니까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해.”/“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가 일단 알아서 해 봐.”/“니들 수준으로 내는 아이디어는 다 거기 같은 생각이야.”/본인이 실수한 것은 감추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떠벌리고 다님/“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일방적인 지시 사항/업무 절차를 잘 모르면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책임 전가 의견 무시, 강제적 업무 지시/욕설을 잘하는 상사/정황상 비슷하게 일이 진행되면, “내 말이 맞잖아.” 생색내고 이후엔 다른 의견을 더 무시하게 됨/책임감 없고 무성의하게 본인 이득만 취하려고 아부하는 행동들/인신공격성 언행/본인의 잘못은 남에게 넘기고 잘된 것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상사/본인 일을 나한테 떠맡기고 정작 본인은 놀고 있을 때/나이가 어린 상사가 나이 많은 하급자에게 반말로 뭐라 할 때 등

3.4. 회식 상황

직장에서의 회식은 구성원 간의 인간적 교류와 단합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직장의 회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응답자의 51.3%가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직장 내 회식 문화는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가끔(10번 중 2~3번) 또는 여러 차례(10번 중 4~5번) 갈등이 발생한다는 비율 역시 40.7%에 달해 아직도 상급자나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강압적인 회식 분위기 속에서 하급자가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이 회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처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회식 자체를 피한다는 응답이 8%에 달했으며, 회식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비율이 41.3%로 높게 나타났다.

회식 상황에서 응답자를 불쾌하게 했던 언행을 조사한 결과 회식 상황 자체보다는 음주 강요나 심한 주사와 같은 음주 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너만 가정이 있느냐 어린 게 어딜 도망가.”/“우리 한잔 더하자.”/(여직원에게) “앞치마 두르니 부엌데기네.”/“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라.”(잠깐이 4시간이 됨)/“마서! 암말 말고 따라해.”/“돌아가면서 반드시 한 곡씩 하세요.”/“요즘 술 끊었나 봐.”(간접 강요)/“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어제 말도 안 하고 도망갔더라? 기본이 안 되어 있어.”/임신했을 때 괜찮다고 술을 권할 때/술에 취해 했던 말을 계속 하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을 할 경우/술 안마시고 뭐해? 왜 벌써 집에 가? 회식자리에서 2차를 가지 않는 동료나 술자리에서 술잔을 비우지 않는 동료에서 핀잔을 주는 경우/윗사람이 주는 건데 거절한다며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그런 게 아니면 술잔 받으라며 강요함/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해도 자기도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식 자리를 불편하게 이끌어 감/술을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함/약속한 회식 이후 2차, 3차를 가는 것은 개인 선호의 차이

업무의 연장선은 아닌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참석하길 원하는 상사들이 있어 불만이지만, 앞에서 불평하기는 쉽지 않음/폭음 후 주사를 부리는 동료 등

3.5. 휴가 및 휴직 관련 상황

그동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직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챙기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 결과 여전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휴가와 관련된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휴가 및 휴직 관련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한다(10번 중 2~3번)고 답한 32.7% 외에 10번 중 6~7번 정도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호소한 응답자도 20.7% 수준에 이르렀다. 휴가와 휴직에 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와 관련된 의사소통 갈등을 경험했던 응답자의 32%가 뒤에서 불평하거나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체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와 휴직은 개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비율도 5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적극적으로 갈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휴가와 휴직을 얻어 내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 방식이다. 11.3%만이 휴가와 휴직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었다.

연차 사용 거부, 휴가 중 업무 지시, 육아 휴직 사용 제한 등 휴가와 휴직과 관련된 갈등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좋겠네?”(비꼼)/“여행가는 것을 좋아하나 보죠.”(비꼼)/“나도 애나 낳아야겠어.”(비꼼)/“일은 다 해 놓고 쉬는 거야?”(휴가 신청 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하며 평가할 경우 불쾌함)/“사실 너에게 시킬 일이 있었는데 바쁜 거 같아서 시키지 않고 있었다. 휴가를 낸 걸 보니 시간이 있나 보네. 휴가 가지 말고 이 일해.”/“왜 휴가 쓰는지 어딜 가는지

얘기하고 가.”/“지금 바쁘니, 내년에 가지.”/“업무는 처리하면서 쉬어라.”/“난 정해진 휴가 다 못 쓴다.”/“업무 로드 걸리면 휴가 반납하고 일해야 한다.”/“휴가 중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야?”/“왜 가는데? 무슨 일인데, 지금 휴가 갈 정신이 있니?”/“휴가라도 일 있을 땐 나와.”/“그렇게 휴직이 쉬운 건 줄 아시나요? 법에 보장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내가 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아랫것이 먼저 신청해?”/휴가 사유에 대해 묻고, 특이한 사유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럼 회사 나와서 쉬어.”라고 얘기함/사규에 보장된 휴가를 쓸 뿐인데, 휴가가 긴 경우 불이익을 줄 때/육아 때문에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급한 용무로 호출하고 심지어 회사에 나오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음. 명백한 인권 침해임/해외 휴가 중에도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휴가 다녀와 보니, 일을 제대로 처리 하지 않고 휴가 떠났다는 듯이 이야기함/여름휴가를 몰아서 안 쓰고 나눠 쓴다고 야단 칠 때/육먹을 각오하고 휴가 써라. 장기 휴가를 쓰려고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반대하고 봄 등

3.6. 사적 대화 상황

직무 외 사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갈등의 빈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38.7%, ‘가끔 발생한다’는 비율이 42.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자주 그렇다’는 경우와 ‘여러 차례 그렇다’는 경우도 18%에 달해 사적인 대화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법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이처럼 사적 대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양상으로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완곡하게 지적하면서 설득하는 경우 31.3%,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38%였다. 사적인 대화 상황이므로 그냥 참는다는 의견은 14%, 당사자에게 항의하거나 제3자나 전문가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14% 수준이었다.

직무 외 사적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상호 이해 부족, 배려 부족, 사적 대화의 공론화, 뒷담화 등과 같이 응답자가 불쾌하게 느꼈던 언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자는 능력보다 외모” / “빨리 결혼해라.” / “언니들이 잘해야지.” / “여 직원이 와야 분위기가 좋아지지.” / “그런 거 먹으면 살 찌! 살 빼고 시집갈 생각이나 해라. 똥똥하고 덩치 큰 여자 남자들이 다 싫어한다.” / “너만 무슨 특별하나. 남들과 다르게.” / “이 지역 사람들은 멍청해서 같이 일을 못 하겠네.” / “여자들은 딱 지 일만하고 주는 일을 쳐 내는 스타일이지.” / “못생겼어.” / “여자들은 융통성이 없어.” /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 “이 일은 남자 직원이 하기에는 그렇고 여 직원들이 와서 해야지!” / 당사자에게는 한 마디 언급하지 않고 뒷담화로 일관하는 사람/사적인 얘기를 직원들에게 소문내고 다닐 때/여자들은 금방 회사 그만둔다는 식으로 말할 때/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소문을 확대하여 퍼트림/뒤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매사에 불평불만인 동료/나의 상황을 왜곡하여 떠벌리는 태도/사실 남자라는 이유로 과한 업무를 받는 게 많은 편/큰 문제가 아닌 이상 상사에게 불만 표시를 하는 것은 어려움/퇴근을 일찍 한다고 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함 / “여자들이 책임감이 좀 약하긴 하지.” 라는 말을 할 경우/개인 신변의 공론화/망금 나눈 대화가 다음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돌아올 때/능력 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함/결혼을 준비했을 때 비판적으로 얘기함/잡무는 여직원, 제대로 된 업무는 남자 직원이’ 아직 이런 인식이 팽배함/개인적 내용을 소문으로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

4. 직장 내 의사소통의 문제점

직장 내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할 경우 설문 내용에 대한 양적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느낌 등 개인의 심리적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인 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장 의사소통의 표면적 양상뿐 아니라 직장인의 의도나 반응 등 질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5월에 기업 상담사 7명과 사무직 직장인 23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하여 직장 내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하였다.⁴⁾ 조사 내용은 직장인이 직무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 의사소통 상황 및 참여자에 따른 남녀, 동성 직장 동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사례 파악이 중심이었다.

총 30명의 서면 인터뷰 대상자가 작성한 서면 인터뷰의 자료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문제를 업무 처리 과정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 지시된 내용에 대해 담당자끼리 모여 업무 회의를 하는 상황,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 처리된 업무에 대해 다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상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장면에 따라 공개적인 질책이나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분노 표현 상황, 성별 대화 상황, 다양한 언어 예절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4.1. 업무 지시 상황

서면 인터뷰 결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가 부족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이다. 업무 지시를 할 때 업무의 성격, 범위는 물론이고 업무 처리 기한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상급자로서 하급자가 업무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지원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아 하급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이다. 둘째,

4) 이 연구에서는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가지는 직장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인터뷰 대신 서면 인터뷰를 익명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과도하게 상세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이다. 하급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까지 업무를 지시하여, 불신감을 느끼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제한하는 경우이다. 셋째,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이다.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중시하여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업무 지시의 자세에 대해 하급자가 불만족스럽게 여긴 경우이다. 넷째, 상급자가 업무 보고를 할 때 하급자가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묵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2. 업무 회의 상황

서면 인터뷰 결과 업무 회의 상황에서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회의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회의 상황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지 못하고 수직적 구도에 얽매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둘째, 회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비난과 폭언을 경험한 사례이다. 원활한 대안 도출과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난하여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회의와 관련한 소통 방식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이다. 회의를 소집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회의 참여 방식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이다. 넷째, 회의 상황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독선적이고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4.3. 업무 수행 상황

서면 인터뷰 결과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수행에

대한 피드백에 관련된 경우이다. 처리한 업무에 대해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피드백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업무 요청을 하면서 빚는 갈등과 관련된 경우이다. 지나치게 업무 범위에 선을 그어 냉정하게 대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의사소통의 문제에 해당한다. 셋째, 부당하고 불합리한 업무 요청과 관련된 경우이다.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 협조 요청이라고 받아들여 서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넷째, 타 부서와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이다. 부서 간에는 결재 선에 차이가 있고 의사 결정의 구도를 면밀히 고려해서 업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4. 업무 보고 상황

서면 인터뷰 결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상황에서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를 보고할 때 상급자의 경청 태도가 부족한 경우이다. 업무를 보고하였지만 귀담아 듣지 않아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였으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보고의 방법에 대해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완곡한 표현으로 묻는 것에 대해 하급자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성과를 가로채는 보고의 경우에도 하급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표현하였다. 중간 관리자가 하급자의 성과를 가로채고 보고를 할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4.5. 분노 표출 상황

서면 인터뷰 결과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상황에서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이다. 사소한 경우에도 호통을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거나 질책을 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셋째, 크게 화를 내지는 않지만 상대를 공감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서운함을 느낀 경우이다. 넷째, 비하, 조롱, 저주, 협박 등 여러 차원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이다.

4.6. 성별 대화 상황

서면 인터뷰 결과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의 대화 상황에서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별적 발언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이다. 여성의 능력을 차별하거나 남성과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성희롱적 발언을 경험한 경우로써,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면전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대화 상황이 아니라 여성 간의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 상급자의 비중이 예전보다 커졌다. 이로 인해 여성 상급자와 여성 하급자 간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7. 언어 예절 상황

서면 인터뷰 결과 직장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여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언어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다. 한국 언어문화의 특성상 연령에 따른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큰데 이와 관련하여 서로의 생각이 달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둘째, 직급에 따른 소통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직급과 연령이 역전되는 경우, 사무직과 관리직 등 직군과 직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 상에서 서로의 인식이 달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사적으로 한 이야기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넷째,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로만 통화하는 전화의 경우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전화 예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장 내 의사소통의 실태와 직장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직장 내 의사소통 갈등 및 문제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권위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 직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관의 공존과 이해관계의 상충에 대한 이해 부족,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가치관 차이, 각자의 입장 및 이해관계에 대한 고집, 전달하는 정보의 양적·질적 타당성 및 정확성 부족,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부족, 상대방 체면에 대한 위협, 장면별 특성에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 간과, 상대방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및 기술 부족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직장 내 의사소통에서 적용해야 할 의사소통의 원리로 개방성의 원리, 협력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적절성의 원리를 제안한다.

개방성의 원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와 다른 생각이나 태도, 입장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바깥 세계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격려하는 의사소통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방성의 원리는 상대방에 대한 권위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 직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관의 공존과 이해관계의 상충에 대한 이해 부족,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가치관 차이, 각자의 입장 및 이해관계에 대한 고집과 같은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직장 내 의사소통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성의 원리는 지금 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흐름에 합치되도록 말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참여자들 서로가 의사소통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협력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사가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 정보를 주지 않는 것, 모호하게 전달해 놓고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어 자신의 것인 양 보고 하는 것 등은 직장 내 의사소통의 방향이나 목적이 요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협력성의 원리는 전달하는 정보의 양적·질적 타당성 및 정확성 부족이라는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직장 내 의사소통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손성의 원리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절 바르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의사소통에서는 정보 전달을 통한 정확한 업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보다 즐겁게 수행하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 입장에 대한 배려 부족, 체면 위협이라는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직장 내 의사소통 갈등 및 문제, 예컨대 가족 여행 중이거나 병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고 제한된 시간 내 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동료나 부하 직원이 함께 있는 회의에서 자신이 낸 의견에 대해 면박을 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성의 원리는 직장 내 의사소통 상황 맥락에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 말하고 듣는 상황의 적절성, 화제 선택의 적절성, 내용 전달 방식의 적절성, 말하고 듣는 태도의 적절성, 용어나 어휘 선택의 적절성, 호칭어·지칭어 사용의 적절성, 높임말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과 전략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성의 원리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직면하는 주요 의사소통 상황별 특성이 요구하는 바와 그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비롯되는 직장 내 의사소통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의사소통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게 해서는 실제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서면 면담 분석 결과, 주어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의사소통 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이 직면하는 의사소통 상황 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관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전략 중심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⁵⁾

5) 전은주 외(2015)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대화 실태와 양상, 현재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직장 내 대화 교육 프로그램'과 직장인을 위한 상황별 대화 전략이 담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참고 문헌

- 구현정(1997),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 김창대·민경화·윤숙경·공은혜(2008), “직장에서의 대인역량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대인 역량 교육 및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세미(2015), “부서 내 직급 간 간접화행 분석: A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신군재(2013), “직장 내 남녀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ADR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第23卷 第4號.
- 여은호·박경우(2009),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9권 4호, 한국지역언론학회.
- 이창덕 외(2001), 《삶과 화법》, 박이정.
- 전은주 외(2015),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 직장 내 대화법”, 국립국어원.
- 전은주(2013), “드라마 직장 대화에 나타난 질문 화행 분석”, 《화법연구》 22, 한국화법학회.
- 조범상·전재권(2012), “직장인 스스로가 본 심리 건강”,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 허상희(2011), “공손법 관점에서 본 거절화행의 실현양상: 가족지위와 직장 지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 Morgan, J.(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New York/San Francisco/London.
- Arredondo, Lani(2000), 하지현 역(2002), Management Power Program01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지식공작소.
- Leech, G.(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New York:Longman.

군대 언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관희

호서대학교 한국어문화전공 교수

1. 들어가며

얼마 전, 국방부는 새로운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초, 제설 등의 사역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기고 병사들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강 해이, 상대적 복무 강도의 약화, 보안의 문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와 더불어, 2016년 3월에 발표된¹⁾ 국방부의 지침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른바 ‘다나까’ 말투²⁾가 군의 공식적인 높임말인 것으로 대내외에 잘못 인식되고 있고, 그 결과 ‘-(지) 말입니다와 같은 정체불명의 표현이 대표적인 군대식 표현으로 통용됨을

1) 2016년 4월에 종영된 한국방송공사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당시에 큰 인기를 누렸으며, 군인으로 등장하는 극 중 인물이 ‘-(지) 말입니다’를 자주 사용하여 일종의 유행어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띠는 발표였다.

2) ‘다나까’에 대해서는 ‘-다, -나, -까의 종결 어미를 의미한다는 설과 ‘-다 혹은 -까를 뜻한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할 수 없고 ‘다나까’ 말투를 써야 한다는 법적·정책적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부대 관리 훈령’ 제31조(언어 태도)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예의를 갖춘 표현’을 강조할 뿐이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장교-부사관 간’, ‘장교-장교 간’, ‘부대가 다른 병 상호 간’에는 해요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과 이후의 생활관에서의 대화나, 일상 대화 등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그간 암묵적으로 금지되었던 해요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지침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2018년의 그것에 비해 2016년의 정책은 안정적인 정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 내에서 모종의 의미를 생성해 내며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온 표현들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지침’으로만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의 국방부 발표 이후는 물론 비교적 시간이 흐른 시기까지도 다음의 신문 기사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 (1)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교육 훈련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나까’를 써야 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선택적으로 ‘해요체’를 써도 된다고 했다. 장병들은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적인 자리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한다. 또 처음 시행됐을 때 대부분의 간부는 “내무반 안에서 사병들 간에 ‘해요체’를 쓰고, 사병이 간부들에게 쓰는 건 안 된다.”라고 이해했다. 지금은 사병이 간부들에게 쓰는 경우도 많다. 지침에 해요체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육군 일병은 “신병교육대에서 다나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배워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애매하다. 대상도 헛갈려 소대장한테 해요체를 썼다가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17년 11월 30일).

사실, 정책적 차원에서의 군대 언어에 대한 관심은 2016년의 ‘올바른 병영 언어 사용 지침’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방부의 발주로 수행된 일련의 정책 연구(장소원 외, 2011; 2012; 2014)는 물론 교재의 형태로 제작되어 일선 부대에 배포된 박재현 외(2015) 등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인 박재현 외(2016)에서는 군대 언어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구안하면서 군대 언어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군대 언어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더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박재권(1999a, 1999b, 1999c, 2000)에서는 일본어 투 군대 용어에 대해, 이지수 외(2011)에서는 외래어 투 군대 용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연구인 박재현·조진수(2017)에서는 군대 은어와 낱선 한자어의 문제를 사용자의 인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한, 어법적 차원에서 군대 언어에 접근한 연구로는 압존법을 포함한 높임법의 문제를 다룬 이정복(1994), 박용한(1997, 2008, 2012) 등을, ‘말입니다’라는 특수 표현에 대해 접근한 박용한(2000), 이관희(2017) 등이 확인된다. 이에 더해, 박용한(2016)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군대 언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박재현 외(2015, 2016), 박재현·조진수(2017), 이관희(2017)에 기반하여 군대 언어의 양상에 대해 그 범주를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³⁾ 다시 말해, 박재현 외(2015, 2016)를 근거로 군대 언어에 대한 양상화를 시도하고, 특정 언어 현상에 주목한 박재현·조진수(2017), 이관희(2017)를 소개하며 미시적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군대 언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박재현 외(2015, 2016)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점에서, 이 글은 박재현 외(2015, 2016), 박재현·조진수(2017), 이관희(2017)의 핵심 내용이나 사례를 가져왔음을 밝힌다.

(2) 박재현 외(2015)의 목차

- ① 바르고 고운 말(순화어)
- ② 예의를 갖춘 말(어법에 맞지 않는 말)
- ③ 존중과 배려의 말(언어폭력)
- ④ 하나가 되는 말(차별 표현)
- ⑤ 이성을 배려하는 말(성차별·성희롱 표현)

(3) 박재현 외(2016) 장병 언어 교육 자료의 목차

- ① 군대 바른 어법
 - ① 군대식 오용 표현 바로잡기
 - ② 과도한 대답 표현을 강요하지 않기
 - ③ 높임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 ④ 호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 ② 존중과 배려의 소통 방법
 - ①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기
 - ② 칭찬과 겸양으로 소통하기
 - ③ 효과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하기
 - ④ 공감하며 대화하기
 - ⑤ 비폭력 대화하기
 - ⑥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기
- ③ 어법에 맞는 보고서 작성법(간부용)
 - ① 순화어 사용하기
 - ② 적절한 단어 선택하기
 - ③ 기본에 충실한 문장 사용하기
 - ④ 어법에 맞게 표기하기

그런데 이 중에서 (2)의 ③, ④, ⑤, (3)의 ②는 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원만한 관계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이기는 하지만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의 특수성 속에서 다루기에는 제한적이다.

욕설·비속어·분노 표현, 지역·인종·세대·성 등에 따른 차별 표현, 성희롱·성폭력 표현 등은 모든 담화 공동체에서 피해야 할 언어들이기 때문이다.⁴⁾ 또한, (3)의 ③ 역시 ①에서 제시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군대 언어의 변별적 속성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가 지니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2)의 ①을 박재현·조진수(2017)를 통해 살피고, 장을 달리하여 (2)의 ②, (3)의 ①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군대 언어로 인식되는 ‘-(지) 말입니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꼭지를 두어 논의할 것이다.

2. 순화 차원의 접근: 외래식 표현, 군대 은어, 낮선 한자어 등

‘뽀글이, 깔깔이, 짬밥, 육공, 총기 수입, X-반도, 고참, 구보, 오버로크, 기도비닉(企圖秘匿), 등화관제(燈火管制)’ 정도의 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어종 측면의 기원이나 사용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른 시기부터 국어 순화 혹은 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지적되어 왔던 표현들이다. 박재현 외(2015)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양상의 표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시는 순화어 혹은 지시 대상).

4) 다만, (2)의 ④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별 상이한 표현’은 군대 언어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이다. 예컨대 2007년 해병대 사령부는 ‘확인형 접호’를 기존의 ‘순검’으로 환원한 바 있는데, 2012년 국방부에서는 순검을 포함한 ‘체스트, 주계, 주계별, 조별 과업, 석별 과업, 격실’ 등 해병대 특수 용어를 군 일반 용어로 바꾸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박재현 외(2015:130)에서는 군별 상이한 표현의 사례로 ‘자대 배치(육군, 공군)/실무 배치(해군, 해병대), 보직(육군, 공군, 해병대)/메닝(해군), 주특기(육군, 해병대)/특기(공군)/직별(해군), 식판(육군, 공군, 해군)/쥬라이(해군, 해병대), 소화기(육군)/총기(공군)/소병기(해군, 해병대), 외박(육군, 해병대)/특박(공군)/상륙(해군, 해병대), 초병(육군, 공군, 해병대)/현문당직(해군), 부대차렛(육군, 공군)/총원차렛(해군, 해병대), 조교(육군, 공군)/D.(해군, 해병대)’를 제시한다.

(4) 박재현 외(2015)에서 제시하는 순화 대상 군대 언어

- ① 군대 은어: 귀돌이(→ 귀마개), 깡새(→ 이발병), 깔깔이(→ 방상 내피), 땡보(→ 편한 보직), 말년(→ 전역 대기병), 뽀글이(→ 봉지 라면), 사제/싸제(→ 군대 밖 물건), 아들(→ 1년 늦게 입대한 후임병), 아버지(→ 1년 먼저 입대한 선임병), 짬(밥)(→ 식사, 군 경력), 짬 처리(→ 남은 밥 처리, 떠넘기기), 짬찌(→ 신병, 계급이 낮은 군인), 피돌이(→ 충성마트 관리병), 꿀빨다(→ 편안하게 생활하다), 뽕이치다(→ 고생하다), 짱박히다(→ 일을 피하기 위해 숨다)
- ② 비공식적 군사 용어: 다찌(→ 5/4톤 군 차량), 딱판(→ 인원 현황판), 뚜껍(→ 전투모, 방탄헬멧), 모포(→ 임무형보호태세), A급(→ 1급, 최상급), 5대기(→ 5분 대기조), 육공(→ 2.5톤 트럭), 화이바(→ 방탄 헬멧)
- ③ 일본어: 가라(→ 가짜, 헛-), 구루마(→ 수레), 나라시(→ 고루 펴기, 평탄화 작업), 다이(→ 대, 받침), 단도리(→ 채비, 단속, 마무리), 분빠이/뽀빠이(→ 분배, 나눔), 뽕끼(→ 속이는 일), 쇼부(→ 흥정, 결판), 시다(→ 보조원), 시마이(→ 끝냄, 마감), 아타라시/아다라시(→ 새것), 아싸리/앗사리(→ 아예, 깔끔히), 와쿠/와꾸(→ 틀), 유도리(→ 용통, 용통성), 쿠사리(→ 면박, 핀잔)
- ④ 일본식 한자어: 각개 점호(→ 인원 점검), 계원(→ 담당자, 담당 병사), 고참(→ 선임, 선임병), 구보(→ 달리기), 내무반(→ 생활관), 마대(→ 포대, 자루), 모포(→ 담요), 시건장치(→ 잠금장치), 요대(→ 허리띠), 익일(→ 다음날, 이튿날), 잔반(→ 남은 밥, 음식 찌꺼기), 주기(→ 기록, 표기), 착모(→ 모자를 쓰시오), 착석(→ 자리에 앉으시오), 총기 수입(→ 총기 손질)
- ⑤ 일본식 외래어: 공구리(→ 콘크리트, 콘크리트 반죽), 기브스/깁스(→ 석고 붓대), 더블백(→ 의류대), 라지에타(→ 방열기, 라디에이터),

미싱/미씽(→ 물청소, 광택 작업), 밤바(→ 완충기, 범퍼), 뽕꾸(→ 구멍, 핑크), 추리닝/츄리닝(→ 운동복, 활동복)

- [6] 외래어·외국어: 가이드라인(→ 지침, 방침), 데이터/데이타(→ 자료), 디렉터(→ 탐지기), 루트(→ 통로, 경로), 모토(→ 신조, 좌우명, 제목, 표어, 목표), 메딕(→ 의무병), 바리깡(→ 이발기), 바리케이드(→ 방어벽, 방책, 방벽), 바인더(→ 보관철), 바인딩(→ 경계 표시), 사이드카/사이카(→ 호위 차량), 시에스알(CSR)(→ 통제보급률), 오버로크(→ 휘잡치기, 푸서박기), 왁싱(→ 왁스 입히기, 왁스 작업), 인트라넷(→ 내부 전산망)

- [7] 낯선 한자어: 공병(→ 빈 병), 불입(→ 납부, 치름, 냄), 시방서(→ 설명서), 이격 거리(→ 떨어진 거리), 입수 보행(→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 적사함(→ 모래함), 적치하다(→ 쌓아 놓다, 쌓아 두다), 집하(→ 모음), 축수 엄금(→ 손대지 마십시오), 취식물(→ 음식물)

[3], [5], [6], [7]의 경우에는 ‘시에스알(CSR), 오버로크, 입수 보행’ 정도를 제외하면 비단 군대뿐 아니라 일반 담화 공동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례들이기에 특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 내에서만 흔히 쓰이는 나머지 사례들이다. 그런데 언어 자체가 지니는 속성이 그러하듯이 이들 표현들에 대해 교조적이고 일방적인 ‘순화 지시’만으로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내무반(→ 생활관), 더블백(→ 의류대)’ 등처럼 이미 순화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미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순화어를 제시하기 어렵거나 해당 표현이 생성되어 소통되는 담화적 맥락을 일시에 소거하기 어려워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표현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해당 표현들에 대한 실제 사용자들의 개선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5)와 같이 유형별 교육 및 접근 방식을 논의한 조진수·박재현(2017)의

논의⁵⁾는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준다. 요컨대, 군대 언어 역시 일반 언어의 보편적 속성을 토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개입되는 강제적 힘의 논리만으로는 개선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 표현들이 지니는 담화 공동체 내부의 역동적 힘에 주목하여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군대 은어와 낱신 한자어의 사용자 인식 유형별 교육 방향(조진수·박재현, 2017:235)

- 개선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이 모두 높은 표현 → 현재의 순화어 및 대체 표현을 교육에 적극 활용(축수 엄금, 불입, 공병, 등화관제 등)
- 개선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 → 개선 필요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수용 가능성이 높은 순화어 혹은 대체 표현을 개발하여 보급(말년, 깔깔이, 뽀글이, 아버지, 아들 등)
- 개선 필요성에 비해 수용 가능성이 낮은 유형 → 원 표현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각 맥락에 맞는 대체 표현을 제시(은어에 내재한 의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명시적인 지적과 교정 교육/개선 필요성 교육도 병행(짹짹, 짹, 뽕이 치다, 짹 박히다, 꿀 빨다 등))

3. 어법 차원의 접근: 대답 표현, 높임법, 호칭어 등

‘어법’의 영역은 상당히 넓게 분포하기에 제한된 지면 안에서 군대 언어의 어법적 특성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군대의 특수성을 반영

5) 조진수·박재현(2017)에서는 전역한 지 2년 미만의 장병(예비역) 201명을 대상으로, 군대 은어 26개와 낱신 한자어 12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하면서도 해당 담화 공동체의 인식이 어법 차원에서 투영되어 실현된 일부 표현들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3.1. 그릇된 군기 강요: 과도한 대답 표현

(6) 병장: 오 이병, 입대하기 전에 국문과 다녔다고 했지?

이병: 네.

병장: 뭐? 네? 누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어? 이게 빠져 가지고.

(7) 병장: 너희 부서 일일 결산 보고 왜 아직 안 보내?

이병: 네?

병장: 뭐? 네? 이게 빠져 가지고. 여기가 사회냐? 이따가 생활관 가서 보자.

(8) 병장: 오 이병, 오늘 불침번 일변초 누구야?

이병: 잘 모르겠습니다.

병장: 뭐? 이게 빠져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게 돼 있나?

이병: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6)~(8)은 특히 병 상호 간에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선임병의 질문이나 지적에 대한 후임병의 대답으로 구성되는 담화이다. (6)은 단답에 대한 거부감과 후임자의 군기를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혹은 ‘네, 알겠습니다.’로 답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다 보니 이를 짧게 발음하여 ‘넷습다.’라는 정체불명의 표현까지 양산된다고 한다. (7)의 경우는 선임병의 말이 빠르거나 특정한 군대 용어 혹은 표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후임병이 되묻기 발화를 하는 장면인데, 군대에서는 흔히 후임병 자신이 제대로 듣지 못한 실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잘 못 들었습니다.’라는 대답을 요구한다고 한다. (8)도 유사한 상황인데, 선임병의 질문에 대해 후임병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단순히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대답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도한 대답 표현에 대한 강요는 이른바 ‘군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대답 표현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⁶⁾에서도 드러나는데 분대장의 질문에 대해 이등병이 답변할 때에는 ‘네.’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가 자연스러움에 비해 답변자가 같은 계급인 병장일 때에는 ‘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넷습다.’라는 축약 형태 역시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되묻는 대답의 경우에도 계급을 막론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가 자연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가운데 ‘네?’가 허용 되는 비율은 답변자의 계급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다. 이러한 경향은 후임병이 선임병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의 대답 표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답변자가 이등병일 때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포함하는 대답이 자연스럽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은 것에 비해 병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잘 모르겠다고 답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듯 과도한 대답 표현은 군대 구성원 전체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계급의 후임병들이 보여야 하는 ‘군기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6) 3장에서 제시하는 설문 조사 결과는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박재현 외(2016)에서 제시된 것으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전역 2년 이내의 예비역 201명에게 자신의 복무 경험에 비추어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대장(병장): 오늘 검열 준비 다 했냐?	네.	네, 그렇습니다.	넵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답변자가 이등병일 경우	3명 1.49%	120명 59.70%	9명 4.48%	69명 34.33%
답변자가 병장일 경우	93명 46.27%	45명 22.39%	40명 19.90%	23명 11.44%
분대장(병장): 행정실 가서 우리 분대 치장 물자 수령해라.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다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가 이등병일 경우	2명 1.00%	157명 78.11%	5명 2.49%	37명 18.41%
답변자가 병장일 경우	70명 34.83%	105명 52.24%	17명 8.46%	9명 4.48%
분대장(병장): 야간 근무 초번초가 누구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자가 이등병일 경우	13명 6.47%	75명 37.31%	13명 6.47%	100명 49.75%
답변자가 병장일 경우	111명 55.22%	65명 32.34%	8명 3.98%	17명 8.46%

3.2. 그릇된 위계 반영: 과도한 높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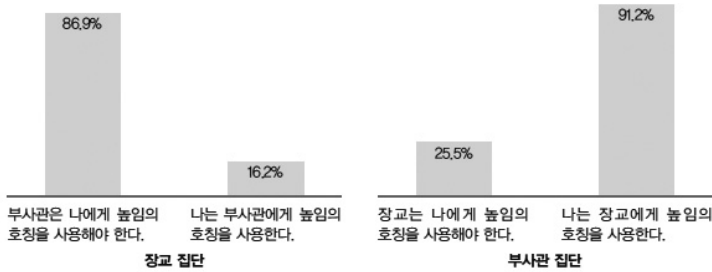
군대에서의 높임 표현이 일반적인 담화 공동체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우선 압존법의 문제를 살필 수 있다. 주지하듯이, 2011년에 발간된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에서는 직장에서의 압존법은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 거리가 있으며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군대는 다른 사회 조직들에 비해 계급 간의 위계가 훨씬 중시되는 공간이다 보니 압존법의 사용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입대한 달(月)이나 기수 단위로 위계가 결정되는 병사 집단에서는 전입 신병이 압존법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전체 부대원의

서열을 암기하는 일이 부대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2016년 3월 1일에 부대 내에서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엄격한 위계 체계에 근거한 압존법에 대한 경직된 인식이 하루아침에 개선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실제 제시된 발화 장면이 복무 당시의 언어 사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묻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분대장, 소대장, 주임 원사의 계급을 막론하고 압존법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세부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대장: 이거 누가 알려 줬어? 일병: 네, 분대장이 알려 줬습니다.	7명 3.48%	7명 3.48%	30명 14.93%	49명 24.38%	108명 53.73%
중대장: 이거 누가 알려 줬어? 일병: 네, 소대장이 알려 줬습니다.	7명 3.48%	10명 4.98%	28명 13.93%	53명 26.37%	103명 51.24%
중대장: 이거 누가 알려 줬어? 일병: 네, 주임 원사가 알려 줬습니다.	25명 12.44%	37명 18.41%	33명 16.42%	38명 18.91%	68명 33.83%

그런데 위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높임 표현에 대한 흥미로운 지점은 '주임 원사'에 대해서는 다른 두 장면에 비해 압존법 사용이 자연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다는 점이다. 계급으로는 엄연히 주임 원사 < 소대장 < 중대장의 관계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통념상 연령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높임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위계 관계를 판단할 때 계급 요인과 연령 요인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3자에 의한 판단뿐 아니라 장교-부사관 집단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데, 박용한(1997)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사관 집단 역시 장교들이 자신들에게 높임의 호칭을 사용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장교 집단이 부사관 집단을 높여 부르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3.3. 그릇된 관계 형성: 어색한 호칭어

병사들 사이의 위계 관계가 일반적으로 부대 단위로 형성되는 군의 특성상 다른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에게는 계급을 무시한 채 ‘아저씨’라고 부르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한다.⁷⁾ 군대에서의 경험과 계급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군인다운 호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이러한 호칭을 계도하기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여 왔다. 특히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932호) 제29조에서는 ‘직책 등 신원 불상의 군인 상호 간에는 전우 또는 전우님으로 호칭한다.’라고 하여 ‘전우(님)’이라는 대체 표현까지 제시하였다. 그런데 ‘전우(님)’은 20대 초중반의 장병들에게 선호되기 어려운 한계⁸⁾ 속에 여전히 ‘아저씨’가 많이 쓰임은 다음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7) 또한 이들 사이에서는 계급과 무관하게 해요체가 통용된다.

8)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2014년 12월 14일) ‘용사’라는 호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아저씨의 대체 표현은 아니고 현행 4단계 병사 계급을 일원화하여 병 상호 간의 호칭을 ‘용사’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 소속이 서로 다른 부대의 병사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지 표시하세요.

1	아저씨	138명(68.66%)
2	전우님	22명(10.95%)
3	철수 씨(이름 + 씨)	21명(10.45%)
4	김 일병(성 + 계급)	2명(1.00%)
5	김 일병님(성 + 계급 + 님)	18명(8.96%)

장소원 외(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아저씨’라는 기존 호칭어에 너무 익숙해졌을 뿐더러 대안으로 제시된 표현이 다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호칭어 ‘아저씨’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어적 관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특정 담화 공동체 내에서 특정 표현이 소통되는 맥락을 소거한 채 외부에서 개입되는 강제적 힘의 논리로만 변화를 꾀하는 일은 무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대체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부대에서 이미 ‘아저씨’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364명	34.8%
‘전우님’, ‘용사님’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484명	46.2%
기타	199명	19.0%
합계	1,047명	100.0%

4. 군대 언어 접근의 한 방식: ‘-(지) 말입니다’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의 관계

앞서 살폈듯이, 이 글에서는 군대 언어를 일방적인 교정과 처방의 대상으로만 부각하기보다는 담화 공동체로서의 군대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언어 사용자 간의 관계적 속성에 토대를 두고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언어 주체의 역동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군대 언어로 인식되고 유통되는 ‘-(지) 말입니다’에 대해 다른 이관희(2017)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군대 언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접근 방식을 보이고자 한다.

이관희(2017)에서는 자료 수집 시기를 기점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전역한 30명을 대상으로 복무 당시에 ‘-(지) 말입니다’를 사용하거나 들었던 장면을 재구성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표현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였는가를 범주화하였다. 즉, 군대 내의 담화 맥락 상황에서 ‘-(지) 말입니다’가 부담하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대상 30명 중 14명은 해당 표현에 복무 초기에만 노출되었거나 아예 노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추후의 인터뷰를 통해⁹⁾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공손성 실현을 위한 언어적 장치 ‘-(지) 말입니다’가 모종의 변화 과정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몇몇 맥락에서는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라는 유표적 언어 장치가 ‘-(지) 말입니다’를 대체하는 양상이 분석되었다.

9) ‘-(지) 말입니다’의 사용 집단이 재구한 상황 각각에 대해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본래의 의도를 살려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1. ‘말 흐리기’나 ‘존대 유지’를 위한 덧붙임

- (9) [상황] 다른 일을 하느라고 병장이 지시한 일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유를 설명함.

병장: 너 어제 부식 창고 정리하라는 거 다 했냐?

일병: 아직 다 못했습니다.

병장: 왜? 그거 내일까지 다 해야 하는데.

일병: 오후에 ○ 상병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주임원사님이 말입니다, 식당 주변 배수로 청소하라고 해서 말입니다.

- (10) 약간 투정 같은 게 섞여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말입니다’를 안 쓰면 그냥 ‘했는데’, ‘원사님이’, ‘해서’ 이 부분을 약간 늘이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병장이 답답해하고 빨리 말하라고 압박지르니까 ‘말입니다’를 쓰게 돼요(육군, 보병 병과, 2015년 11월 전역).

- (11) 만약에 ‘말입니다’를 안 쓰는데, 중간에 고참이 말 중간에 자기 말을 해 버리면 저는 어쨌든 반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대화가 빨리 전개될 때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 무의식중에 반말 비슷하게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말입니다’를 막 넣게 되는 거죠(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9)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말입니다’의 자리에 통용 보조사 ‘요’를 길게 발화하겠지만, 해요체를 암묵적으로 금기하는 군대에서는 또 다른 언어적 선택 행위를 하고는 한다. 즉, ‘말입니다’에는 ‘말 흐리기’의 기능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11)의 진술과도 맞닿는데 대화 순서가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말입니다’는 하급자가 지속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표지로도 기능한다.

물론, 상급자를 철저히 존대해야 하는 군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지) 말입니다’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은 (12)에서와 같이 ‘말입니다’가 담당하는 말 흐리기나 존대 유지의 의미 기능을 대체로 공손한 말투나 목소리, 눈 맞춤, 자세 등의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대체한다고 보고한다.

- (12) 저희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없이도 그냥 알아서 예의를 차리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목소리가 작아지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2. 청유나 제안 시의 부담 완화

가장 많은 상황이 재구된 양상인데, 청유나 제안 발화에 수반되는 발화 수반력, 즉 실행 의무 부담감을 줄이고 공손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지) 말입니다’를 사용하는 상황이다.¹⁰⁾

- (13) [상황]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부사관에게 차량 사용을 제안함.

상병: 시멘트가 무겁고 양도 많은데 차량 하나 끌고 와서 거기다
싱고 나르지 말입니다.

부사관: 안 돼. 수송부 차량은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야. 그냥 나르자.

상병: 더 쉽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차 쓰시지 말입니다.

10) 일반적으로는 하십시오체 청유형 어미의 보충형으로 요-통합형 ‘-시지요’가 쓰임에 비해 군대에서는 해요체가 규제되는 맥락과도 연관되는 지점이다.

(14) 그냥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두돈반 빌려 오면 금방 끝나고 다 같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수송관이 진짜 꼬장꼬장했거든요. 저는 밑에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좀 쓰자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막 ‘쓰자’, ‘써야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으니
 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13)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감추고 상급자의 체면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지 말입니다’를 선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5)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지) 말입니다’의 자리에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유묘적 언어 형태가 대체된다고 한다. 청유나 제안이 지니는 실행
 부담감은 최소화하고 질문의 의미 기능을 표면화함으로써 상급자에게 부여
 되는 부담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때,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는 청유나 제안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발화 행위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15) 넌 이병이니까, 뭐 물어보거나 그럴 때 무조건 ‘-해도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꼭 붙여라. ‘저녁 먹으러 가실지 여쭙 봐도 되겠습
 니까?’, ‘차 쓰면 안 될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3. 단정적 표현에 대한 부담 완화

상급자에게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단정적 표현보다는 소극
 성이 느껴지는 ‘-지 말입니다’를 사용함으로써 단언적인 성격을 다소 누그러
 트리는 상황이다. (16)이 이에 해당되는데, 특히 (17)의 진술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하급자는 단정의 의미가 강하게 표출되는 발화보다는,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나 이후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맡기는 의미로 발화하려 할 것인데, 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바로 ‘말입니다’라는 것이다(박용한, 2000:179).

(16) [상황] 약간 짜증나 있는 중사에게 문제를 보고해야 함.

분대장: 반장님, ○일 연대장님 방문 맞습니까? 애들 장구류 새 걸로 준비시키면 됩니까?

반장: (언성을 높이며) 어, 몇 번을 말하나? 지난번처럼 땡구 나는 일 없게 해라.

분대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 일병이 장구류 새 거가 없지 말입니다.

반장: 아, 왜 또 없어. 알겠어, 기다려 봐. 내가 알아볼게.

(17) 이때 중사님이 다른 일로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말하려던 것은 ‘△ 일병이 장구류 새것이 없다는 거였는데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하고 얘기를 시작하던 거였어요. 근데 돌아오는 말이 ‘몇 번을 말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새 거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해 버리면 바로 ‘그래서 나보고 어찌라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거예요 (육군, 보병 병과, 2015년 11월 전역).

그런데 (18)에서처럼 대체 표현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역시 발화의 단언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언어적 전략으로 쓰인다. ‘장구류 새 거가 없습니다.’의 단언에 덧붙여 판단과 대책 수립을 상급자의 몫으로 돌리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라는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닌 질문 행위 자체에 대한 허락에 초점을 둬으로써 최대한 자신의 곤손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18) 이런 것도 앞에 거랑 비슷하게 ‘장구류 새 거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4. 확인 질문에 대한 부담 완화

위계를 중시하는 군대에서 하급자의 질문은 체면 위협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까’를 통한 단정적 질문 자체를 금지하는 악습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에서는 평서형 어미를 유지한 채 어조만 바꾸어서 ‘-지 말입니다’를 통해 상급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19)가 그러한 경우이다.

- (19) [상황] 작업 내용을 고참에게 확인하려 함.

나: ○ 병장님, 여기부터 예초기로 밀면 되지 말입니다?

병장: 그래 거기서부터 나 있는 데까지 밀고 와.

- (20) ‘안 됩니까?’는 되게 건방져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하는 상황이잖아요(육군, 보병 병과, 2015년 11월 전역).

(20)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반적인 질문 상황이라기보다는 하급자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의 질문이며, 이때에 ‘-지 말입니다’가

의문형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21)의 진술처럼 질문 행위에 대한 허락 표현을 통해 질문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를 사용한다. 이때, 그 대답은 허락 여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질문 내용에 대해 이루어짐을 통해서도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가 일종의 관습적인 표현으로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 (21) ‘말입니다’를 올려서 물어보면 더 불공손해 보여요. 까부는 것 같고.
 ‘밀면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죠. 대답은 ‘그래,
 거기까지 밀어.’ 이렇게 나오죠(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5. 농담이나 맞장구를 통한 친밀감 형성

농담이나 맞장구의 상황에서 ‘-지 말입니다’가 쓰이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담화 공동체와 달리 폐쇄성과 위계성이 강한 군대에서는 구성원 간 관계의 다층성이 쉽게 형성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담화 상황에 따른 언어적 코드 전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군대에서는 ‘-지 말입니다’가 비격식적 장면에서 친교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의미 기능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은데, (22)가 이에 해당된다.

- (22) [상황] 일과 끝나고 두 달 선임이랑 대화
 나: 오, 이거 대박이지 말입니다.
 선임: 뭔데? 뭔데? 보여 줘 봐.
 나: 아, 맨입으로는 못 보여 드리지 말입니다.
 선임: 아나, 그런 게 어딴? 고참이 보여 달라면 보여 주는 거지.

(23) 선임이랑 친하면 쓰는 게 ‘말입니다’였거든요. 안 친한데 괜히 ‘말입니다’를 사용하면 욕먹고 그랬거든요(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이러한 언어적 선택은 친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일종의 ‘농담 관계(joking relationship)’처럼 ‘-지 말입니다’를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정한 대체 표현이나 전략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손성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맥락 혹은 상황 의존적이어서 해당 상황에서 공손성을 드러내는 ‘(-지) 말입니다’의 의미 기능이 굳이 발현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5. 나오며

여타의 담화 공동체가 그러하듯, 군대 역시 언어적 관습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즉, 군이라는 공간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사회적 행동의 양식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양식은 군대 공동체의 유지와 확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군대는 조직 중심적이며 상명 하달의 위계 관계가 두드러진다는 점, 인접 담화 공동체와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폐쇄적 집단이라는 점에서 ‘고유의 독립되고 정교화된 언어 체계’가 강하게 형성되는 담화 공동체이다. 더구나 의무 복무 병사들의 시선으로 보면, 지속적인 노출과 습득을 통해 해당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 규범과 관습을 강요받기 때문에 군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한 ‘부담감’이 복무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군대 언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접근 관점이다. 즉, 언어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군대 언어를 ‘잘못된 표현, 틀린 표현’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접근을, 수직적 명령 구조에 기반한 ‘지침 하달’식의 접근을 군대 언어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 가능하듯이, 설사 그 공간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공동체 및 언어 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섬세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대중적 문제 해결 차원으로만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군대 언어가 지나는 다양한 양상을 몇몇의 범주로 구획하여 살폈으며 같은 범주 내에 속하는 언어 표현이라 하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이나 대체 표현의 수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군대식 언어 표현을 둘러싼 담화 공동체 내부의 역동적 힘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지) 말입니다’를 대상으로 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아무리 ‘개선’이라는 긍정적 의도를 견지한다고 해도 언어의 변화를 꾀하는 일은 사용의 맥락과 구성원의 언어적 선택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당연히게도 ‘내부의 목소리’에서도 여실히 확인되는데, 군대에서의 해요제 사용에 대한 예비역 인터뷰 결과(이관희, 2017:92)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24) 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십 년 동안 ‘요’ 쓰지 말라고 해 놓고 하루아침에 ‘쓰지 마.’ 이런다고 그게 굳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장한테 생활관에서 ‘밥 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왜, 예전에 이웃 부대끼리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전우님, 용사님’ 이렇게 부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 현실은 보지 않고, 그냥 회의에서만 그렇게 결정된 거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죠(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참고 문헌

- 박용한(1997), 《대우법 수행 중에 발생하는 규범충돌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박용한(2000), “군대 영내 거주자 집단의 ‘-말입니다’ 사용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169-192쪽.
- 박용한(2008), “해군 장교 부인들 상호 간의 호칭어 사용 연구: 호칭어 ‘사모님’과 ‘선배님’의 사용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6-2, 한국 사회언어학회, 249-272쪽.
- 박용한(2012), “국어의 존댓말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군에서의 압존법 사용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0-1, 한국사회언어학회, 57-77쪽.
- 박용한(2016), “군대 언어의 제도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24-3, 한국 사회언어학회, 125-155쪽.
- 박재권(1999a), “일본어투 군대 용어 사용 분석”, 《일본학보》 42, 한국일본 학회, 51-66쪽.
- 박재권(1999b), “일본어투 군대 용어 조사”, 《일본학연구》 4, 단국대 일본 연구소, 73-91쪽.
- 박재권(1999c), “일본어투 군대 용어의 변화 실태 I”, 《일어일문학연구》 35-1, 한국일어일문학회, 63-87쪽.
- 박재권(2000), “일본어투 군대 용어의 변화 실태 II”, 《일어일문학 연구》 37-1, 한국일어일문학회, 69-91쪽.
- 박재현·박소연·양경희·이관희·조진수·호지은(2016), 《국군 장병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교육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
- 박재현·최병욱·박창균·이유미·최홍원·이관희·조진수(2015), 《바른· 고운·쉬운 병영 언어》, 국방부.
- 이관희(2017), “군댓말 ‘(-지) 말입니다’의 의미기능 및 대체 양상”, 《화법 연구》 35, 한국화법학회, 63-94쪽.
- 이지수·조은영·정은진(2011), “군내 용어 순화를 위한 외래어 연구”, 《한국 군사학논집》 67-1,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41-72쪽.
- 장소원 외(2011), 《군내 언어 개선 방안 연구》, 국방부.

- 장소원 외(2012), 《군 구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국방부.
- 장소원 외(2014), 《장병 병영생활 언어 교육 교재 개발 연구》, 국방부.
- 조진수·박재현(2017), “군대 은어 및 낱선 한자어의 사용자 인식 유형별
교육 방향”, 《사회언어학》 25-1, 한국사회언어학회, 213-238쪽.

일반 사회(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예절

김태경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원장

1. 머리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아마도 호칭이나 인사말 등 언어 예절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자주 보는 사이라면 일정한 호칭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를 어떻게 부르고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좋을지 고심할 때가 많다. 지인의 가족을 만날 때, 식당이나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직원을 부를 때,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할 때 등 각각의 상황에서 참 다양한 말들이 쓰이고 있어서 어떤 말이 좋을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무심코 사용하는 호칭이나 인사말이 상대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어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도치 않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어 예절에 관한 일종의 지침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언어 예절을 표준화하여 혼란을 바로잡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덜고자 《표준 언어 예절》(2011)을 발간한 바 있다. 《표준 언어 예절》(2011)은 2009년과 2010년 언어 예절에 관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공개 토론회, 그리고 2011년 국어 심의회 보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호칭·지칭, 높임법, 인사말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제공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행 표준 언어 예절은 몇 가지 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들어 새로운 직업의 출현, 서비스업의 발달, 수직적 사회 구조의 재편 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언어 예절의 양상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현행 표준 언어 예절에서 권장하는 표현 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요즘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하에 새로운 언어 예절 표준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국립국어원에서 《표준 언어 예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 사업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여 가정과 사회에서의 언어 예절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17)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장소 등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호칭·지칭어와 인사말, 높임법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후에 이루어질 표준 언어 예절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호칭과 지칭

2.1. 지인에 대하여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제수씨’, ‘이모’와 같은 친족 호칭어가 가족이나 친족 관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안에서 통칭 호칭어로 널리 쓰이는 일이다. 먼저,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님)’을 쓸 수 있고,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수씨’(62.6%)라는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 씨’(28.5%), ‘○○ 엄마’(11.5%)가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었다. ‘○ 여사(님)’, ‘아주머니’ 등의 호칭은 사용률이 각각 5.6%, 4.8%에 그쳤다. 기타 응답으로는 ‘이름을 부른다’(0.2%), ‘형수(님)’(0.2%) 등이 있었다. 1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제수씨’라는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30~40대에서 이러한 호칭 사용 양상이 두드러졌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친구를 부를 때에도 ‘아주머니(아줌마)/아저씨’(50.3%)에 이어서 ‘이모/삼촌’(30.0%)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친구를 부를 때 ‘아주머니/아저씨, ○○(지역) 아주머니/아저씨,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 등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아줌마, ○○(지역)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등으로 부르는 것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현실 언어에서도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권고한 ‘아주머니(아줌마)/아저씨’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조금 다른 사용 양상이 나타난다. ‘이모/삼촌’의 사용률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높아졌는데, 특히 10대에서는 ‘이모/삼촌’의 사용률이 59.2%로 나타나, ‘아주머니(아줌마)/아저씨’(46.9%)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제수씨’, ‘이모/삼촌’과 같은 호칭어는 가족이 아닌 지인을 부를 때에도 그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수씨’는 ‘동생의 부인’에 대한 호칭·지칭어이고 ‘이모/삼촌’은 각각 ‘어머니의 여자 동기’, ‘아버지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지칭어라는 점에서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제수씨’ 등의 사용이 이러한 면에서 권장할 수 없는 호칭이기는 하지만, 부르는 대상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그런 경우에 ‘아주머니’, ‘○ 여사(님)’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런 호칭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또한 현재 통칭 호칭어로 인정되는 ‘아주머니/아저씨’도 원래는 친족 호칭어에서 유래한 사실로 볼 때, ‘제수씨’, ‘이모/삼촌’과 같은 친족 호칭어 사용이 확대되는 현상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직원과 손님 사이

《표준 언어 예절》(2011)에 따르면 식당, 상점 등의 영업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손님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이라고 하고, 직함을 정확히 아는 손님일 때는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처럼 직함을 부르거나 성명에 직함을 합쳐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은행이나 관공서 측에서는 ‘손님’, ‘○○○ 님’, ‘○○○ 손님’으로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것이 언어 예절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아버님/어머님’이라는 호칭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 직원이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라고 부를 경우, 손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불쾌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비교적 소수(22.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님/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쾌한 정도에서는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60대 응답자의 경우 불쾌한 정도가 가장 낮았고 40~50대 응답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쾌한 정도가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쾌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버님/어머님’은 노년층에 대한 호칭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듣는 이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때 병원에서 환자를 부르거나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의 민원 창구에서 손님을 부를 때 나이에 관계없이 이름 뒤에 ‘씨’라는 의존 명사를 붙여서

불렀던 듯하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이 호칭이 많이 사라졌다. 사회에서 특별한 직함이 없는 사람들을 부를 때 ‘씨’를 붙여서 말하다 보니, 이 말이 언제부터인가 대체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직원으로부터 ‘○○○ 씨’라고 불렸을 때 불쾌한 기분이 드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쾌하다(16.7%)는 응답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별로 불쾌하지 않다’ 또는 ‘전혀 불쾌하지 않다’로 답한 비율이 83.3%를 차지하였다. 특히, 10~20대의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 씨’라는 호칭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낮았다.

다음으로, 손님이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지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은 ‘아저씨/아주머니’, ‘젊은이’, ‘총각/아가씨’ ‘과장님’, ‘선생님’ 등이고,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르는 말은 ‘여기요’와 ‘여보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요/저기요’가 훨씬 널리 쓰이고 있었다. 《표준 언어 예절》(2011)에 제시된 ‘아저씨/아주머니(아줌마)’, ‘총각/아가씨’와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여기요/저기요’ 등에 대해 청자 입장에서 어떤 호칭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저씨/아주머니(아줌마)’라는 호칭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높았다. ‘매우 불쾌하다’와 ‘조금 불쾌하다’는 응답이 46.6%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아저씨/아주머니(아줌마)’라는 호칭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불쾌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쾌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손님이 직원을 ‘아가씨/총각’ 등으로 부르는 경우는 35.4%가 ‘매우 불쾌하다’ 또는 ‘조금 불쾌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불쾌함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환산하여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직업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가씨/총각’ 등의 호칭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종사자들에 비해 더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까씨’라는 호칭이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특정 직업의 여성을 부르는 말로 쓰이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 언어 예절》(2011)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여기요/저기요’ 호칭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33.9%로 나타나, ‘아까씨/총각’이라는 호칭에 대한 반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50~60대 응답자들이 ‘여기요/저기요’라는 호칭에 대한 불쾌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고, 직업군에 따라서는 관리직이나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들의 불쾌감 정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2.3. 낯선 사람 사이에서

대상이나 상황이 특정되지 않은 범용 호칭어에 대해서는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낯선 사람을 부를 때 실제로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기요’(62.5%)라는 말을 쓴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주머니, 아저씨’(33.5%), ‘여기요’(16.9%) 순으로 자주 쓰이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저기요’를 쓰는 경향이 높았고, ‘아주머니, 아저씨’라는 호칭은 주로 50~60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저기요’라고 불렀을 때 청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매우 불쾌하다’ 또는 ‘조금 불쾌하다’는 긍정 응답(23.0%)에 비해 ‘별로 불쾌하지 않다’ 또는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의 비율(77.0%)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호칭을 손님이 사용했을 때의 반응과 대조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손님이 직원에게 ‘여기요/저기요’라는 호칭을 쓸 경우에 불쾌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33.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면 낯선 사람이 이러한 호칭을 쓸 경우의 불쾌감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낯선 사람 사이에 쓸 수 있는 호칭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응답자 변인에 따라 불쾌한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저기요’라는 호칭에 대해 더 불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높임법

높임법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래에 자주 언급되는 현상은 ‘커피 나오셨습니다.’, ‘자리가 없으십니다.’와 같이 사물을 높여 말하는 일이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10)를 보면,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라는 말에 대해 4.7%가 ‘매우 자주 듣는다’, 20.9%는 ‘종종 듣는다’, 16.4%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42.1%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종사자들이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로 ‘-시-’를 남용하는 현상에 대해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바른 경어법 사용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국어원 및 관련 단체에서 사물 높임 표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다음은 그간 국립국어원 등에서 사물 높임 표현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각종 홍보와 교육 사례이다.

- 2008. 10. 16. “자리가 없으십니다.” 사물 존대화 현상,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3분 39초)
- 2013. 9. 11.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높이는 말, 들어 보셨나요? 국립국어원 제작(1분 5초)
- 2014. 한글문화연대, “커피 나오셨습니다.”(2분 23초)

- 2014. 11. 11. 언어 사용 설명서-와이티엔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1분 8초)
- 2014. 유통업계 영터리 높임말 자정 노력(롯데백화점 등)
- 2015. 카페베네와 함께, “사람이 사물보다 높습니다.” 커피잔 포장지에 홍보

이번 조사(2017)에서는 사물 높임 표현을 쓴다는 응답이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윗사람이나 손님에게 사물을 높이는 표현을 쓰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4.1%가 ‘자주 사용한다’라고 답했고, 20%가 ‘가끔 사용한다’라고 답해, 긍정 응답 비율이 24.1%에 그쳤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사물 높임 표현을 여성보다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는 다른 업종의 종사자에 비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도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문자 그대로 보면, 사물 높임 표현을 쓰는 사람은 적지만 이러한 표현을 접하는(듣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수에 국한된 사람들이 사물 높임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들조차 이런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물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사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사물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24%나 되므로, 이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인사말

4.1. 아침 인사

아침에 하는 일상적인 인사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좋은 아침!’은 외국어를 직역한 말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좋은 아침(입니다).’이라는 인사말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15.4%는 ‘자주 사용한다.’라고 답했고, 43.5%가 ‘가끔 사용한다.’라고 답해, 긍정 응답 비율(58.9%)이 부정 응답 비율에 비해 더 높았다. 부정 응답 중에서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2%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보다 40~60대 연령층에서 이러한 말을 더 자주 쓰고 있었다. 60대 이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쓰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직장에서 40~60대 남성들이 아래 직원이나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말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데서 비롯한 현상으로 보인다.

4.2. 전화를 끊을 때

전화를 끊을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끊는 것이 언어 예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화를 끊을 때 마땅한 인사말이 없어서 곤란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3.1%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보면, 좀 더 다양한 인사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들어가요.’라는 말도 많이 쓰이지만, 이 말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16.2%가 ‘들어가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답했고, 45.3%가 ‘가끔 사용한다.’라고 답해, 과반수(61.5%)가 이 말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도 사용자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이 말의 사용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윗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뜰 때

이번 조사 결과, 인사말 선택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윗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뜰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45.7%의 응답자가 윗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뜰 때 마땅한 인사말이 없어서 곤란함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구체적인 응답 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2%, ‘조금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0.5%였다.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수고하세요.’처럼 ‘수고’라는 말을 동년배나 아래 직원에게는 쓸 수 있지만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하고 인사할 경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아랫사람에게 이러한 인사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아랫사람이 나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면 불편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60.9%가 ‘별로

불쾌하지 않다.’, 20.2%가 ‘전혀 불쾌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조금 불쾌하다.’는 응답은 16.3%, ‘매우 불쾌하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60세 이상 연령의 응답자가 젊은 세대에 비해 불쾌감 정도는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명령형 문장이고 ‘수고’가 지닌 의미가 주로 고된 노동을 가리키므로 인사말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윗사람보다 먼저 가면서 ‘수고하세요’를 대체할 말을 찾기 어려운 탓에 어느 정도 의례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듣는 이도 특별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제 인사말로 굳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5. 맺음말

표준 언어 예절을 정할 때에는 시대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언어 사용은 권장한다고 해서 억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기준에 비추어 다소 어긋나 있더라도 언중이 널리 쓴다면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예절을 중심으로 최근의 호칭어·지칭어와 인사말, 높임법 등의 사용 실태 및 이에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표준 언어 예절의 내용 가운데 현실과 유리된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제수씨’, ‘이모/삼촌’, ‘어머님/아버님’과 같은 친족 호칭어가 가족 또는 친족 관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안에서 통칭 호칭어로 널리 쓰이고 있었고, ‘여기요/저기요’가 손님이 직원을 부를 때뿐 아니라 낯선 사람을 부를 때에도 범용 호칭어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말 중에서 ‘좋은 아침(입니다).’과 (전화를 끊을 때) ‘들어가요.’라는 말도 그 사용자가 과반수에 달하는 만큼 널리 쓰이고 있었다.

오랜 시간 지켜져 온 규범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규범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규범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 되도록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제수씨’나 ‘이모’처럼 사용이 보편화되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용어는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수씨’는 원래 동생의 부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므로 지인의 아내에 대한 호칭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현행 언어 예절 규범에서 권장하는 ‘아주머니’, ‘○ 여사(님)’과 같은 호칭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지 또한 의문이다. 낯선 사람 사이의 호칭도 민감한 문제인데 《표준 언어 예절》(2011)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대상이나 상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호칭까지 규범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물론 널리 사용된다고 해도 분명한 오용은 구별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기혼 여성들이 같은 여성 지인에게 ‘형남’이라는 호칭 대신 ‘언니’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언니’라는 호칭은 ‘동생’의 대응어이지만 실제로는 연령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호 간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지어 자녀 이름에 기대어 ‘○○(자녀 이름) 언니’라고 부르는 일까지 있다. 연령과 상관없이 상호 간에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녀 이름) 언니’와 같은 무질서한 언어 사용은 더욱 심각한 의미의 혼동을 가져오므로 특히 삼가야 할 것이다.

한편, 《표준 언어 예절》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언중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가령, ‘사물 높임’과 같은 비문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어색하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수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언어 예절 규범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면 사회적 소통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희숙(2002),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0(10), 한국사회언어학회, 1-24쪽.
-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 김덕호(2006), 《연령별 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I: 일반 호칭어 지칭어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 김지연·심영택(2010), “표준 화법 개정을 위한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 조사 연구”, 《화법연구》 16, 한국화법학회, 125-154쪽.
- 김태경·이필영(2018), “표준 언어 예절 개정을 위한 사회에서의 호칭어·지칭어 사용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66, 국어교육학회, 31-68쪽.
- 김하수(2017), “왜 호칭이 문제인가”, 《한국 사회의 호칭 문제》, 한겨레말글연구소 제12차 연구발표회집, 3-8쪽.
- 나운정 외(2017),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노은희(2009), “국어 교육에서 표준 화법 관련 내용의 수용 방향”,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99-127쪽.
- 민병곤·박재현(2010), “표준 화법’의 개정을 위한 직장,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사용 실태 분석”, 《화법연구》 16, 한국화법학회, 199-225쪽.
- 박은하(2013), “호칭어 ‘선생님’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우리말글》 59, 우리말글학회, 1-24쪽.
- 서민정(2008), “한국어 여성 지칭, 호칭어의 변화 양상: 1940, 50년대와 2000년대의 비교”,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327-349쪽.
- 안태숙 외(2017),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이석주(2009), “특집: 한국 사회 말문화와 언어 예절: 한국 전통 사회와 언어 예절”, 《화법연구》 14, 한국화법학회, 9-28쪽.
- 이정복(2000),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8), 한국사회언어학회, 193-221쪽.

- 이정복(2017), “사회적 소통망(SNS)의 호칭 문화와 시사점”, 《한국 사회의 호칭 문제》, 한겨레말글연구소 제12차 연구발표회집, 10-20쪽.
- 이창덕 외(2009),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전은주(2009), “호칭어·지칭어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 연구》 15, 한국화법학회, 65-98쪽.

시, 그대를 듣는다

- 정재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재찬(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질문자 정희창(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때 2018. 2. 20.(화) 곳 한성칼국수

‘문학’ 대신에 ‘말꽃’이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했던 분이 있다. ‘말꽃’은 말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문학이 꽃이라면 ‘시’는 어떤 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정재찬 교수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과정이 극적이다. 늘 시를 가르치다가 우연히 공대생을 위한 시 강좌를 개설했고 열광적인 호응에 힘입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에 공대생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다음에는 자꾸만 유명해졌다는……. 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유명해진 이유가 ‘시’를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유명한 운동선수나 영화배우가 된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듣기 시작했더니……. 세상이 뭔가에 홀린 것인지, 정재찬 교수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마술을 부린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시를 이야기하면서 유명해지는 마법 같은 일을 벌이는 생물학적 존재의 서식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 같은 것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정희창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니다. 드디어 같이 면을 먹는 날이 왔네요. 선생님 하면 ‘시’와 더불어 ‘면’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책에도 ‘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요?

정재찬 ‘냉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희창 냉면을 좋아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냉면을 먹었던 날을 그리워하는 선생님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재찬 교수는 스스로 애면가임을 밝힌다. 사람들과도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이라는 말 대신에 ‘국수라도 한번’이라는 약속을 즐겨 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칼국수집에서 만났다. 칼국수를 먹으면서 동서남북 방향에 위치한 장안의 유명한 냉면집을 이야기했고 내가 사는 혜화동의 유명한 칼국수집을 품평했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손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황지우, <거룩한 식사>)”라는 시구에서 처럼 한 가닥의 라면과 국수 가락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끈 같은 묘한 느낌이 들어 있다.

정희창 선생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듯한데 책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요?

정재찬 학교에서 공대생을 대상으로 융복합 강의를 개발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읽는 불후의 명시’라는 이름의 강좌를 준비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을 잊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라디오처럼 시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시를 잊은 그대에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희창 책을 보면 ‘공대생을 위한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대 학생뿐 아니라 일반 장년층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찬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진작부터 제가 지어 놓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부제를 그렇게 붙이게 된 것은, 사랑하는 ‘공대생’ 제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흔히들 감성 부재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공대생’도 좋아하는 시 강의니까 어지간한 독자들은 다 부담 없이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특이할 정도로 50대 남성들이 많이 읽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불후의 명곡’처럼 세대 간에 문화적 기억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희창 책이 나오고 예상하지 않았던 방송 출연을 계속 하시게 되었을 때 힘들거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저 같은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서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정재찬 텔레비전 방송에서 시를 낭송하고 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대가 시를 원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때가 맞아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를 대중화할 수 있는 기회니만큼 과감하게

방송 출연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어렸을 때부터 남 앞에서 말을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하는 일에 큰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습시다. 조금 늦게 태어났더라면 공부 쪽보다 연예계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웃음) 다만 제가 출연했던 한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알맞은 시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 주는 식으로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그때그때 적절한 시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희창 수많은 시 가운데 독자의 사연에 맞는 적절한 시를 어떻게 찾으셨는지요? 혹시 가나다순이나 주제별로 분류를 해 놓으신 건 아닌지요?

정재찬 분류를 해 놓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무작정 이러저러한 내용의, 이런 색깔의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찾아 보면 제가 원하는 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가 저를 찾아 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새로운 시도 접하게 되고, 새삼스레 새롭게 다가온 추억의 시도 만나게 되고 참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정희창 공대생을 위한 시를 고르고, 독자의 마음을 적시는 시를 골라 주셨으니까 아예 ‘마음이 우울할 때 읽으면 좋은 시’, ‘가을 하늘을 보며 읽는 시’,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읽어 주고 싶은 시’ 같은 것을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재찬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번다한 일로 인해 제 시간을 온전하게 다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를 통한 소통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시 감상이 시의 내용적 측면에만 치우치는 위험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 언어가 도구라면 시적 언어는 존재 그 자체이지요. 그래서 시를 읽고 듣는 것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눈과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는 시는 그만큼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은 시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정희창 문학이라고 하면 시 외에 소설이 생각나고 또 음악이나 미술도 문학과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선생님이 쓰신 책처럼 소설이나 음악, 미술을 통해서도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작업이 가능할까요?

정재찬 사실 어렵고 힘든 일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시를 듣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눈물로 적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에서나 강연에서나 시를 바탕으로 독자의 문화적 기억 속에 공유하고 있을 음악, 미술, 영화나 광고 등을 통해 복합적인 감각과 문식성을 환기 내지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와 문화적 레퍼토리가 다른 분들은 별도의 투자를 하셔야 하겠지요. 그래도 독서나 강연에서 낯선 시와 그림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감상할 수 있으니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설이나 음악의 경우에는 작품을 온전하게 감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희창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든 생각은 굉장히 친숙한 시를 선정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시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친숙한 시를 선택하면 독자에게 친근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 아는 시라는 선입견으로 해석의 여지가 무척 좁아질 듯한데 어떠셨는지요?

정재찬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주로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시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 누구에게나 친숙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선입견에 가려져서 그 진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지요. 그걸 역이용

하고 싶었습니다. ‘나 이 시 배워서 잘 알아, ‘학창 시절 때 배웠는데 참 지겨웠어’ 이런 걸 뒤집어서 새로 눈뜨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낯설게하기’의 일종이라 할까요. 그렇다고 지난 날 배운 게 틀렸고 제 해설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정답이 없으니 시 해석과 감상에 도전하고 즐기라는 것이지요. 시험을 위해서는 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향유를 위해서는 ‘풍부히’ 읽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여러 작품과 해석, 다른 문화와 예술의 사이와 차이를 풍부하게 즐기며 향유하는 것이지요.

정희창 선생님께서는 유명한 미술사와 함께 시와 미술이 공감하는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와 미술과의 만남’은 무척 독특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떠한 의미였는지요?

정재찬 미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현란한 볼 것이 아니라 미술이라는 언어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환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환상은 ‘시’가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 자신의 언어와 색깔로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미술에도 자신의 언어와 색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전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미술 같은 일이지요.

그럴 것이다. 시가 빚어내는 미술, 그 마법 같은 힘은 사실 놀랍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위로와 용기를 전해 주던, 그 시를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다. 말라 가는 화초에 물을 적시듯 그 잊었던 기억을 다시 불러내서 정성스럽게 보듬어 주는 순간, 마른 잎이 다시 살아나 잊었던 기억을 되찾고 공감하며 꽃을 피우는 신기한 미술이 일어난 것뿐이다.

정재찬 교수의 두 번째 책이 《그대를 듣는다》인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에 담긴 힘, 시가 주는 위로의 힘은 결국 소리가 아닌 사랑하는 그대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결국 시일 테니까.

유배 죄인의 ‘만언(萬言)’, 상황과 처지를 그려 내다

염은열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궁중의 화제가 된 ‘만언’

우연히 듣게 된 낯선 노랫말에 끌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노랫말이 어느 순간 새삼스럽게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다. 노랫말의 감성과 듣는 이의 감성이 만나 공명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은, 노래가 청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 구체적으로 듣는 이가 노래를 통해 어떤 감정이나 상황 등을 새삼 깨닫거나 깊게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고전 시가도 ‘한때’ 그런 노래였다. 누군가 지어 부르거나 읊조린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일대 유행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개의 고전 시가 작품은 이본(異本, version) 혹은 각편(各篇)이 여럿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본의 존재 자체가 공감의 폭과 유행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그 울림 혹은 공감은 물론 ‘말’을 엮는 솜씨에서 나온다.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일상의 단어들을 고르고 엮어, 어떤 성격이나 이미지, 상황, 감정 상태 혹은 전언 등을 있게 함으로써 생겨난 효과이다. 말로 어떤 실재(實在)를 만들어 냄으로써, 나아가 듣는 이 혹은 읽는 이의 머릿속에 어떤 ‘형상’을 그려줌으로써 생겨난 효과인 것이다.

우리는 고전 시가를 듣거나 읽으면서 그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만나기도 하며 누군가의 고난과 기쁨 혹은 슬픔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처럼 말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형체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일컬어 사전에서는 ‘형상화’라고 정의한다. 형상화는 문학을 다른 글과 구분해 주는 특징인 바, 얼마나 실감 나게 그려 내느냐에 따라 감동이나 공감의 폭과 깊이가 결정된다.

정조(正祖, 1752~1800) 때 대전별감 안도환은 자신의 추자도 유배 체험을 실감 나게 그려 낸 작가로 유명하다. 안도환은 한양 중인 출신으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다가 비리를 저질러 추자도 유배형을 받은 사람인데 ‘문장 필법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한다. 안도환이 유배지에서 일 년 정도를 보낸 시점에서 옛날 일[已往之事]을 생각하고 지금의 일[즉금 일]을 헤아려 자신의 삼십사 년 생애를 <만언사>로 풀어냈는데, 당시의 개념으로는 가장 큰 ‘만(萬)’이라는 숫자를 제목으로 내세웠다. 왕의 총애를 받던 대전별감이었고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한양 바닥을 주름잡다가 ‘원악지(遠惡地)’인 추자도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고군분투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만언사>는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표현 방법을 보여 줌으로써 큰 인기를 끌었다. <만언사>의 필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후기가 덧붙여져 있다.

(생략) 상이 우연히 누상에 올라 배회하시며 보시니 무수한 궁녀 둘러앉아 한 책을 돌려보고 두세 상궁은 오열체읍하고 모든 궁녀는 손뼉 치며 간간 졸도하며 혹 탄식하고 칭찬하야 자못 분분하거늘 상이 괴이히 여기사 환시로 하여금 그 책을 가져오라 하사 읽혀 들으시고 지은 사람을 물으시니 이르되 죄인 안도환의 글이라 아뢰오니 그 문장의 기틀과 변사의 재담을 사랑하사 즉일 방송하시고 즉시 옛 소임을 주사 천문을 근시하사 천원의 호탕하심과 도원의 재리일세의 유명하더라. - <만언사> 가람본 후기

왕이 우연히 <만언사>에 대한 상궁과 궁녀들의 반응을 목격하게 된다. 왕이 오열체읍(嗚咽歔歔), 즉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손뼉을 치기도 하고 간간히 졸도하거나 탄식을 하는가 하면 어느 대목에 이르러서는 칭찬을 하는 등 자못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떠들썩한[분분(紛紛)]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물론 이 기록은 세책가가 세전을 더 벌기 위해 지어냈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만언사>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필사되고 위와 같은 기록까지 붙어 소설처럼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된 정황만 보더라도 <만언사>의 인기가 대단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후대 세책가들은 그 인기가 변사 안도환의 재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만언(萬言)'으로 그려낸 안도환의 처절한 유배 살이가, 즉 말로 형상화한 유배 체험이 당시 청중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공감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는 안도환이 특히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황과 처지란 물리적 상황이나 처지는 물론이고 안도환의 심정 상황과 처지까지를 포함한다.

2. 심적 정황에의 몰입을 유도하다

문학 중에서도 시가라는 갈래는 압축을 생명으로 한다. 촌철살인의 한 구절로 복잡한 상황과 처지, 심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은 분명 시가 문학의 묘미이다.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양식이다 보니 비유적 표현이 많은 데다가 울격이 느껴지도록 말을 엮어 듣거나 읽는 즐거움까지 주는 것이 가사의 양식적 전통이다. 조선 중기까지의 가사 작품들은 대개 이러한 시가 문학의 양식적 특징과 묘미를 보여 주는데, 무욕이 지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규원가(閨怨歌)>도 예외는 아니다. 허난설헌은 봉황처럼 천하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지녔지만 정작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규방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던, 16세기를 살다간 20세기의 여인이다. 자신의 처지와 한(恨)을 <규원가>에 담았는데, <규원가>에는 더할 말도 없고 뺄 말도 없다.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없이 나가 있어
 白馬(백마)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르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라
 因緣(인연)을 끊었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므
 열두 때 깊도 길사 서른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은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피어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 비는 무슨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에 景物(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백마를 타고 금색 허리띠를 둘렀다는 것은 남편이 한껏 치장을 했다는 소리다. 그런데 한껏 차려입은 남편이 집을 나서는 시간이 절묘하다. 저물 때 집을 나선다. 저물 때, 그것도 예사 저물 때가 아니라 ‘꽃 피고’ 저물 때 집을 나선다. 화자에게는 남편이 잘 차려입고 나갔다는 사실 못지않게 잘 차려입고 나가는 때가 중요하다. 개화(開花)가 사건이 되는 시점은 아마도 봄일 터……。 저물어 가는 봄날 울타리 안이나 담장 너머에 복사꽃이나 살구꽃이 피어 있다. 얼었던 세상이 녹고 마음이 사랑거리는 봄날, 그것도

본향(本郷)이 그리워지고 감성이 충만해지는 저물녘에, 복사꽃, 살구꽃 핀 바깥 풍경을 본 규방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때마침 잘 차려입고 나가는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어디 어디 머물까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남편의 자유가 부럽고 기약 없이 규방에 갇힌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여 자탄과 원망의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연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생각과 그리움에 탄식하다가 모진 목숨이라 죽기도 어렵다는 자탄의 말이 뒤따라온다. 관심이 남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화자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매화와 자취눈, 굶은 비, 꽃과 버들, 그리고 가을 달과 귀뚜라미 등 익숙한 사물들을 끌어들이며, 사시사철 외로운 규방에서 이 생각 저 생각[험]을 하느라 복잡한 자신의 심적 상황을 그려낸다. 급기야 <규원가>의 말미에 이르러 화자는 '박명한 흥안'이라며 자신의 운명을 깊이 탄식하기에 이른다.

남편의 외도 혹은 부재 상황을 잘 차려입고 나가는 행위[백마 금편으로 정처 없이 나가는 행위]로 묘사하되, 외출하는 시간[저물 때]과 사건[꽃 피고]까지 특정한, 화자의 감수성이 예사롭지 않다. 날이 저물고 꽃이 피는 걸 느낄 수 있는 화자였기에, 중세 시대 <규원가>를 지어 남편[제도]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길이가 길기는 하지만, <만언사> 역시 <규원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물, 심정 등을 형상화하여 보여 준다. '꽃 피고 날 저물 제처럼 상황을 드러내는 데 꼭 맞는 말을 골라 조합함으로써, 독자들 역시 그 상황이나 심정을 떠올려 거기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4월 초순 안도환이 마포나루에서 유배지로 떠나며 가족들과 이별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강두(江頭)에 배를 매고 부모친척(父母親戚) 이별(離別)할 제
슬픈 울음 한 소리 막막수운(漠漠愁雲) 머무는 듯

손잡고 이른 말씀 좋게 가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올손가
 여취 여광(如醉 如狂)하니 눈물이 하직(下直)이구나
 강상(江上)에 배 떠나니 이별시(離別詩)가 이때로다
 산천(山川)이 근심하니 부자이별(父子離別) 할 때로다
 요로(搖櫓) 일성(一聲)의 흐르는 배 살 같으니
 일대 장강(長江)을 어느 사이 가로 졌다
 풍편(風便)에 울음 소리 빈 강을 건너오니
 행인(行人)도 낙루하니 내 가슴 무너진다
 호부일성(呼父一聲) 없어지니 애고소리 뿐이로다
 규천호지(叫天呼地) 아무런들 아니 갈 길 되올소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나와 배웅하는 실제 풍경은 위에 그린 것보다 복잡하고 아단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안도환은 ‘좋이 가라’는 짧은 당부의 말을, 그리고 긴 강을 건너 자신을 따라오는 울음소리, 그중에서도 어린 아들의 절규를 선택하여 이별의 상황과 이별하는 고통을 실감 나게 그려 내고 있다. 재회의 기약이 없이 아들을 떠나보내며 부모는 부모 대로 말문이 막혀 ‘좋이 가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들은 아들 역시 가슴이 막혀 대답조차 못한다. 강둑을 떠난 배가 화살처럼 강을 가로지르니 바람결에 우는 소리가 긴 강을 건너오고 행인들도 눈물을 지으니 자신의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부르는 어린 아들의 목소리마저 사라지고 ‘애고’ 소리만 들리는데 그 와중에 범 같은 관리가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 눈물 바람이었을 강변에서의 이별 장면을, 이처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규원가>가 시간과 정황을 특정하여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화자의 심리 상태와 정황에 몰입하도록 유도했다면, <만언사>는 구체적인 행위나 사건을 뽑아 비극적인 이별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별의 상황을 떠올리고 화자의 슬픔이라는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슬픔이나 그리움, 원망의 마음은 여러 구체적인 감정이나 행동들로부터 추상한 마음의 상태 혹은 정황이다. 사람마다 감정의 강도와 질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느끼게 되는 계기 혹은 상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규원가>와 <만언사>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사건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것에 빗댄으로써 슬픔이나 그리움, 원망 등을 촉발한 외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 역시 화자의 감정 상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고백의 양식이기도 한 서정 시가에서는 그리움이나 슬픔, 기쁨, 고통 등의 감정 혹은 심리적 상태와 그러한 감정 및 심리 상태를 유발한 상황을 그려 내는 것이 중요한 미학적인 문제가 된다.

추자도에 있는 죄인 안도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무래도 떠나온 한양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유배형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장기 구금형이기 때문에 안도환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불안감은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실 안도환은 '만언'을 하고도 모자라 <만언답사(萬言答辭)>를 짓고 <사부모(思父母)>, <사처(思妻)>, <사자(思子)>, <사백부(思伯父)>라는 가사 작품을 더 지었다. <만언답사>에서는 왔던 길을 빠르게 되짚어 올라가 한양 땅에 당도하여 가족을 만나 옛말을 하며 사는 것을 상상하였고 나머지 네 작품에서는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여 지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안도환에게 일 년 전 나루에서의 이별 장면이나 추자도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자 감정이다. 객관적 거리를 두거나 조망할 수 없는 사태이고 감정이기애 안도환은 그 사태의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그리움 및 후회의 감정을 형상화할 수밖에 없었고, 화자에게 감정 이입한 독자들

역시 안도환처럼 그 상황과 감정에 몰입하여 ‘오열체읍’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만언사>에는 현재 진행형의 감정이나 그 감정을 유발한 상황만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추자도라는 섬까지 이동하고 낮선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유배자가 경험한 여러 사건이나 관찰 내용 등도 풍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어느 경우나 화자가 경험 주체이자 고백의 주체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 화자는 관찰자이자 이야기꾼의 태도 또한 보여 준다.

3. 이야기꾼으로서 유배 생활을 보여 주다

마포나루에서 가족들과 이별한 안도환은 밤낮으로 이동하여 해남 땅에 도착한다. 큰 바다를 처음 본 안도환은 적잖게 충격을 받지만, 바로 때마침 불어온 서북풍에 기대 유배지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그리고 순항을 하는 배에서 상념에 빠져 있다가 일대 시련을 겪게 된다.

어디서 일편 흑운(一片黑雲) 홀연 광풍(忽然狂風) 무삼일고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배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짓듯 오장육부(五臟六腑) 다 나온다
천은(天恩)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盡)케 되겠구나 (중략)
출몰사생(出沒死生) 삼주야(三晝夜)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수로 천리(水路千里) 다 지내어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島中)을 둘러보니 적막하기 태심(太甚)이라
사면(四面)으로 들어가니 날 알 이 뉘 있으랴
배는 것이 바다히요 들리는 이 물소리라
벽해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이 삼길 제는 천작지옥(天作地獄) 여기로다
해수(海水)로 성을 쌓고 운산(雲山)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끓졌으니 인간이 아니로다
 풍도 섬 어디메요 지옥이 여기로다

변덕스런 날씨를, 어디선가 일어난 한 조각 검은 구름과 갑자기 불어 닥친 미친 바람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날씨가 험해지자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 뱃머리를 치고 배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안도환은 이 광경을 쌀을 이는 조리처럼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린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뱃멀미는 오장육부를 모두 게워 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상황이 그쯤에 이르자 안도환은 간신히 사형을 면했는데 유배지로 가다가 죽는 건 아닌지 공포감마저 느낀다. 삼수갑산과 같은 오지나 변방, 추자도처럼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들은 유배죄인 중에서도 중죄인들이 갔던 유배지였다. 특히 추자도와 같은 섬들은 원악지 중의 원악지였으며 유배지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목숨을 시험하는 형벌이었다. 그런데 삼일 밤낮 사투를 벌인 끝에 어렵게 당도한 추자도 역시 안도환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변화한 한양 중심가에서 살던 안도환에게 추자도는 적막했고 낯설었으며, 모래와 바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천혜의 지옥처럼 다가왔다.

바다를 건너오며 겪은 풍랑과 처음 본 추자도 풍경을 묘사하는 안도환의 시선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 등 자신의 감정을 형상화할 때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이별의 상황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그리움을 형상화할 때와는 달리 위 부분에서는 화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거나 조망하는 위치에 서 있다. 그 배가 떠 있는 바다까지 조망하는 높은 위치에 서서 흔들리는 배를 쌀을 이는 조리에 빗대고, 섬 전체를 조망하는 높은 위치에 서서 추자도의 형상을 바다로 성을 쌓고 구름으로 문을 낸 모래섬으로 그려 내고 있다. 마치 날아가는 새나 무인기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흔들리는 모습과 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모래섬 추자도의 형상을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정철(鄭澈 1536~1593)이 폭포를 형상화할 때 폭포 아래에 서 있는 화자의 시야에 포착되는 모습만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조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천길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몇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실 같이 풀어서 베처럼 걸었다’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생을 한 당사자도 안도환이고 추자도를 지옥으로 인식한 사람도 안도환이지만, 회고담의 일종인 <만언사>를 지은 시점에서 보면 안도환이 겪은 사건과 본 것은 이미 과거지사이다. 과거지사이니 객관적 거리를 두고 이야기꾼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 그로부터 얻게 된 마음의 병 등이 현재형이라, 객관화할 수 없는 것과 구별된다.

이야기꾼으로서 안도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즉 장면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자신이 처한 처지와 심정을 형상화하는 방법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집에 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집에 가 의지하자 연고(緣故) 있다 청탈하네
 이집 저집 아모 덴들 적객(謫客) 주인 님 좋다고
 관력(官力)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말았으니
 관차(官差)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턴지며 역정 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아려보소 주인 아니 불쌍한가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 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官人)들은 인정(人情) 받고 손님네는 추김 들어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緣分) 있어 와 계신가
 내 소리 담박(淡泊)한 줄 보다시피 아니 알가
 앞 뒤에 전답(田畓) 없고 물속으로 생애(生涯)하여

앞 언덕에 고기 낚아 뒷녘으로 장사 가니
 사망 일어(絲網一魚) 보리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신겸처자(身兼妻子) 세 식구도 호구(糊口)하기 어렵거든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랴시오
 집이라고 서 볼손가 기어들고 기어나며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띠자리 한 잎 주어 처마에 거처하니
 냉지(冷地)에 누습(漏濕)하고 짐승도 하도 할사
 발 넘는 구렁배암 뺨 넘는 청진의라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일락(日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술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별표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위 부분은 유배 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안도환의 변사로
 서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유배지에 당도한 유배자는
 관(官)에 당도했음을 보고한 후 살 곳과 보수주인(保守主人)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생계는 유배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곧 해배될 정치범이나 학식이 높은 사대부 죄인의 경우는 지방의 재력가나
 양반집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안도환
 처럼 중인 비리범으로 해배의 기약이 없는 죄인은 환영은커녕 지역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였다. 찾아가는 집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거절
 하자 관리가 안도환을 어느 집에 떠넘기듯 두고 가 버린다. 그러자 집주인이
 만만한 안도환을 향해 세간살이까지 던지면서서 역정을 낸다. 자신의 식구들
 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원망의 말을 쏟아 낸다. 보수주인을 정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보수주인의 행동과 말을 통해,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안도환의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안도환은 결국

그 집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유배 생활을 시작한다. 뱀과 온갖 해충이 나오는 처마 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믐날 희미한 솔불이 두세 집에 켜지고 멀리서 슬픈 소리와 배 떠나는 소리가 들려 안도환의 심회를 돋운다.

이렇게 시작된 안도환의 유배 살이는 그야말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와 고생 그 자체로 요약할 수 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냥까지 하고 온갖 일을 해 보지만 재주가 없어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온갖 병에 시달리는가 하면 5월 한양을 떠나올 때의 옷차림 그대로 섬에서의 겨울을 맞이하다 보니 극심한 추위와 사투를 벌인다.

한번 의복(衣服) 입은 후의 춘하추동(春夏秋冬) 다 지내니
 안팎 없는 소음옷은 내 옷 밖에 또 있겠는가
 검기도 검을시고 온냉(溫冷)도 부적(不適)하다
 옷칠의 감칠인가 솟장의 먹장인가
 여름에 하 더울 때 겨울을 바랐더니
 겨울에 하 추우니 여름이 생각난다
 쓰이신 망건(網巾)인가 입으신 철갑(鐵甲)인가
 사시(四時)의 하동(夏冬)없이 춘추(春秋)만 되었구나
 팔꿈치 드러나니 그는 죽히 견디려니
 바지 밑 터졌으니 이 아니 민망(慚慚)한가
 내 손수 김자하니 기울 것 바히 없다
 액 굵은 실이로다 이리 얇고 저리 얇어
 고기 그물 걸어맨 듯 꿩의 눈 꿰어맨 듯
 침재(針才)도 기절(奇絶)하고 수품(手品)도 사치(奢侈)롭다
 증전(曾前)에 적던 식량(食糧) 크기는 무슨 일고
 한 술에 요기(療飢)하고 두 술에 물리더니
 한 그릇 담은 밥은 주린 범의 가재로다
 조반(朝飯) 석죽(夕粥)이면 부가옹(富家翁) 부러하라

아침은 죽이러니 저녁은 간데 없네
 못 먹어 배 고프니 허리띠 탓이런가
 허기(虛飢)져 눈 깊으니 뒤꼭지 뒤 거의로다
 정신(情神)이 아득하니 운무(雲霧)에 싸였는듯
 한 고비 넘단 말가 두통(頭痛)이 지심(滋甚)하다

유배지에서의 곤궁함을 먹고 입는 문제로 구체화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늦은 봄 한양을 떠나올 때 입었던 단벌옷으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났으니 안도환의 여름과 겨울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된다. 그마저 여기저기 해지고 터져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급하게 바지 밑을 손수 수선하기에 이른다. 처음이다 보니 실을 엮는 수준에서 터진 바지를 꿰맸는데, 꿰맨 후 안도환은 자신의 바느질 재주와 솜씨가 대단하다고 자조하고 있다. 바느질 까지 손수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가볍게 희화화한 것이다. 한양에 있을 때는 한 술만 먹고 밥상을 물리곤 했던 자신이 추자도에서는 한 그릇을 쥐도 여러 날 굶은 호랑이가 먹이를 먹듯 똑딱 해치운다고 말한다. 늘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먹을 게 없어 눈이 뒤꼭지까지 쑥 들어가고 정신까지 아득해질 정도라도 한다.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된 사건과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겨난 신체적 곤란함 등을 이처럼 잘 형상화할 수가 있을까. 이처럼 안도환은 먹고 입는 문제로 특정하여 유배지에서의 고생을 형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 역시 유배 죄인 안도환의 눈물 나는 처지와 상황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4. 울고 웃고 또 울고 웃고

<만언사>는 '나의 추상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구체화한 시가이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생애를 재구성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안도환은 작품 서두에서 ‘심사를 부칠 길이 없어’ 노래를 짓는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답답하고 불안정하고 복잡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고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가사를 지었다는 것은 일종의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시가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를 지을 당시 안도환은 고생에는 다소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추자도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패닉은 후회와 한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온갖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시작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일정 정도 허구화되고 내 삶이 객관화된다. 안도환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이나 처지를 형상화하면서도 그 상황을 관찰하거나 조망하는 시선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 그 상황을 희화화하기도 하였다. 처절한 일상과 절망적인 심정을 다루면서도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주를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고난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조일망정 그렇게라도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도환은 감정 이입과 거리 두기라는 상반된 태도를 동시에 견지하면서 자신의 유배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만연사>를 읽는 궁녀들의 반응이 분분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안도환의 ‘만연’을 듣다 보면 독자들 역시 유배 살이의 실상을 목도하고 유배 죄인의 심정 상황과 처지에 공감해 울다가 웃고 손뼉을 치다가 다시 울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도환의 말재주가 비상함을 칭찬하게 된다. 궁중의 여인들을 포함하여 과거의 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학은 고난이나 슬픔을 형상화한다. ‘가난하다’거나 ‘힘들다’거나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슬픈지 말로 그러서 보여 준다. 그렇게 청자나 독자와 소통을 한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잘 알려진 ‘추상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떠올려 준다. 하야카와(Hayakawa)는 추상의 사다리를 낮게 해야만 말의 미로에 빠지지 않고 소통

할 수 있다고 했다. 붉은색이 뭐냐고 물었을 때 색이라고 답하고 색이 무엇인
 냐고 물었을 때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질이라고 대답해선 붉은색에 대해 알
 길 없지만, 추상의 사다리를 낮춰 ‘자동차가 멈춰 섰을 때 신호등의 빛깔’
 혹은 ‘소방차의 빛깔’이라고 하면 붉은색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다.
 문학은 추상의 사다리가 높은 주제를 다루되 형상화를 통해 그 사다리를
 낮춤으로써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배움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다. <만연사>
 를 통해 우리는 유배 살이의 실상과 유배자의 고통에 대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세대들은 가난이나 고생, 사랑을 모른다고 걱정하는
 기성세대들도 있다. 앞 세대의 가난이나 사랑, 고생을 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양상의 가난이나 사랑, 고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남의 슬픔에 같이
 울고 남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자신이 경험하
 지 않은, 혹은 제한적으로 경험한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소통할 것인가이다. <만연사>, 나아가 문학 작품이 그러한 학습과 소통,
 연대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말의 격랑으로 읽는 촛불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년여 전 광화문을 뒤흔들었던 촛불 시위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 구속되고 주변의 많은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사회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촛불 시위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한국에서 등장한 사회 운동의 한 유형으로 설명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다른 사회 운동 형태에 비해 상징성과 이미지 효과가 큰 촛불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렇긴 하지만 촛불이 강력한 정치·사회적 힘을 발휘한 것은 그와 함께 표출된 말들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촛불과 함께 등장했던 말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 낸 말들을 되살리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촛불의 이미지를 말의 메시지와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뜻이 깊다. 이 글에서 촛불과 함께 표출되고 언표되었던 말의 격랑, 언어의 결집, 뒤엉킴, 부딪침을 짧게나마 생각해 보려 한다.

말문의 열림

우리말에 말문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과 문을 연결한 그 상상력이 흥미로운 어휘다. 말문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는 표현에서 보듯 말이 표출되는 최종 지점에 그것을 막아서는 어떤 힘, 마음속의 말을 끝내 드러내지 않고 움켜쥐게 만드는 장벽이 있다는 실감에서 만들어진 표현이라 하겠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좀처럼 말을 잘 쏟아 내지 않던 개인이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평소와는 달리 엄청난 힘으로 말들을 쏟아 내는 때를 만나게 된다. 나는 이번의 촛불은 거대한 규모로 말문이 열린 상황, 오랫동안 닫혀 있던 우리 사회의 집합적 소통의 대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촛불은 말문을 여는 열쇠 노릇을 했다. 촛불을 들고 어두워진 광화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말의 문이 열렸고 알지도 못하는 옆 사람과 대열을 이루어 구호를 함창했다.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었고 박수와 함성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말들을 내놓았다.

그 현장에서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Exit, Voice, and Loyalty)》라는 책을 저술한 앨버트 허슈먼(Albert O. Hirschman)이란 학자를 떠올렸다. 그는 기업이나 조직, 국가에 충성심이 사라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을 떠나기(exit)와 말하기(voice)로 개념화했다. 한국의 낯익은 표현을 빌려 보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의 행동이 떠나기이고 절다운 절을 만들라고 주지 스님에게 대드는 것이 말하기인 셈이다. 허슈먼의 논리는 이후 여러 곳에 활용되어 독재 정권하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상이한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자주 언급되었다. 내가 보기에 수많은 촛불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말할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좌절감을 떨치고 분연히 ‘말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자체였다.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말이 닫혀서가 아니라 소통 부재의 공공 영역에 대한 답답함과 속상함에서 연유한 어떤 증세였다. 기가 막힌다거나 말이 안 나온다는 표현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대한 거부감과 낭패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가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지닐 수 없었던 사람들은 뉴스를 들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세월호가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가라앉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그대로 희생된 상황은 모두의 기를 막고 말을 잃게 했다. 이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다는 것으로 마음속의 정서를 표하고 자 했다.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된 사건을 접하면서 경악한 시민들의 말문도 막혔다. 그들 역시 노란 스티커를 강남역에 붙이는 것으로 말을 대신했다. 구의역에서 한 순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사고사한 사건 역시 청년층은 물론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슴을 막히게 만든 일이었다. 그렇게 답답하던 심정, 닫혀 있던 말문이 최순실이라는 숨겨졌던 인물이 드러나고 최고 권력자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순간 분노와 함께 터졌다.

촛불은 한국 사회가 싫다고 떠나기를 선택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표명하고자 생각한 사람들이 선택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다. 촛불은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물음으로 표현되던 좌절감과 열패감이 새로운 언어로, 공통의 사회적 발언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 때로는 문화 공연을 하듯 행진하던 수만, 수십만의 무리는 목청껏 내놓고 싶었던 마음속의 많은 말들을 표어로, 구호로, 발걸음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나는 촛불과 말들이 엄청난 규모로 모여들던 당시의 상황이 마치 여름철 폭우로 생겨난 거대한 물살 같았다고 느꼈다. 강바닥까지 훑으며 한바탕 대청소를 하고 가는 그런 물길의 장대함 같은 모습이 강렬했다. 전국 곳곳에 자유 발언대가 마련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회상은 촛불이 시작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말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내가 나라를 걱정할 자격이 있는가, ‘그럴 만큼 아는 게 많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내 슬픔과 분노, 걱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기를 망설였다……. 나는 촛불문화제에 처음 참여하면서 자유 발언을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역시 ‘내가 말을 잘해 봐야 얼마나 잘하겠나’라며 사람들 사이에 숨는 것을 택했다……. 어느 자리든 내 생각을 펴는 데 주저한 적이 없었는데도 유독 두려워하고, 말을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강박 관념을 갖고 있었다. 사실 쓸데없는 족쇄였다. 내 생각이 옳든 그르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저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유 발언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 버렸다. 수학여행을 못 가게 돼 불쾌하고 억울하다는 중학교 2학년, 단원과 학생,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여행객들도 잊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아주머니, 모두 자신이 받아들인 대로였고 특별히 화려하게 말하려 하지도 않았다.’¹⁾

말하기를 망설이던 이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하며 숨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고 말하기 시작했다. 골방과 구석에서가 아니라 광장과 대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쏟아 냈다. 삶과 혼연일체가 된 진솔한 말이어서 화려한 수사나 논리가 없어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광장은 이런 말문의 열림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1) 하승우 외(2017), “아래로 더 아래로”, 《11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삶창, 37쪽.

분출과 격동

폭우 뒤의 거센 물결에는 온갖 종류의 물과 흙, 자갈과 물건들이 뒤섞인다. 여러 지천들에서 몰려든 물이 큰 홍수를 이룰 때 삼시간에 강둑을 위협하고 모든 것을 삼킬 듯 격동한다. 그 장대한 포용, 온갖 것을 집어삼키는 역동성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원시적 힘, 자연의 시원함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광화문에서 터진 말문은 폭우 뒤에 급격히 불어나는 물살처럼 거대한 규모로 분출했고 날선 부딪침의 격랑을 통해 다중(multitude, 多衆)의 힘, 두려운 집단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

그동안 말문이 막혀 답답하던 사람들이 떠나없이 합류하게 되었을 때 표출될 말의 내용은 제각각이고 그 결도 다양했다. 세월호 이래 도대체 이 나라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느냐는 회의감으로 속상했던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얼 했는가를 따져 물었다. 강남역에서 살해된 여성에 대한 안타까운 위로를 공유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일 년여 병상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다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애도와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노도 여과 없이 표출되었다.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권력 기구의 가혹함, 그것을 숨기는데 일조했던 사회 엘리트층에 대한 강한 규탄도 담겼다. 환호와 자부심, 각오와 함께 비난, 두려움, 염려도 뒤섞였다. 어른들의 말, 여성의 말, 학생의 말, 청년의 말, 아이들의 말, 노인의 말이 뒤섞였다. 정치인의 말, 소상인의 말, 지식인의 말, 노동자의 말도 뒤엉켰다. 이런 여러 갈래의 말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말로 모였다. 국회와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말은 사실 매우 낮설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이다. 이전에도 이런 말을 하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말문이 열리고 제각기 가슴속에 있는 답답함이 터져 나오자 이 무거운

말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함께 쏟아졌다.

물론 환호와 격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난의 말들도 함께 커졌다. 한 언론이 '각성한 시민들의 민주적인 행동'이라고 상찬하면 다른 언론은 '중북 세력과 사회 불만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해설가 옆에는, 그들을 잘못된 가짜 뉴스에 속아 동원되고 있는 무리라고 폄하하는 전문가가 자리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다른 말들, 생각들, 느낌들이 제각각 터져 나왔고 어떤 권위도 작동하지 못한 채 한 데 뒤섞였다. 그리고 그런 뒤섞임 자체가 다시 말들의 격랑을 더 심화시켰다. 광화문에 촛불과 함께 태극기 부대라는 또 다른 집단이 등장한 것은 이런 격랑이 거대한 두 물줄기로 나누어져 흐르는 모습이었다. 태극기 부대에 참여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말을 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탄핵 반대라는 말을 내세워 자신들의 억울함, 좌절감,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했고 사회가 자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직업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은 은퇴자들, 점점 약해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어떻게든 세워 보고 싶은 아버지들, 목숨 걸고 나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예비역들, 잘 모르지만 박정희 정권 이래 산업화의 일꾼으로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이 겪고 있던 내적 허탈함, 야속함, 자괴감, 분노감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촛불과 태극기는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폭우로 생겨난 같은 격랑의 두 줄기였다. 이 두 집단이 거대한 시위를 계속하면서도 별다른 상호 충돌을 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들 모두가 상대방의 존재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흥미롭게도 촛불의 공간에서는 해학과 풍자의 말들도 함께할 공간이 있었다. 이상한 이름의 깃발들은 무거움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자유로운 말, 개성적인 언어가 전체 속에 파묻히기 싫다는 적극적 표현으로 읽혔다.

‘장수풍뎡이 연구회’, ‘혼자 나온 사람들’, ‘민주묘충’, ‘트잉어 운동연합’, ‘범야옹 연대’, ‘사립 돌연사박물관’, ‘양배추 시식연합’ 등의 깃발들은 광장이 어떤 권위 있는 말들로 지배되거나 특정한 생각이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상징적 행동이었다. 시민으로의 각성과 정당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격도 나타났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혐오적 배설도 적지 않았다. 북한, 민주화 세력, 특정 지역,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저격 대상으로 상정된 터무니없는 말들이 이런 저런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런 말들의 정치적 지향은 매우 달랐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 상처를 말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정제됨과 하나됨

촛불 시위가 지속되면서 말들은 대의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집단 지성이라 할 정도의 정제됨을 보여 주었다. 아마도 그 일차적인 요인은 말의 격량이 가져올 수도 있을 무질서, 폭력성에 대한 공통의 염려가 아니었을까. 말을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폭력에 대한 거부감, 혁명에 대한 주저함이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폭동을 일으키는 다수, 감정에 휘둘리는 집합체로서의 군중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들은 폭력 집단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며 조만간 그러한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비난에 빠지지 않으려는 강박적 경계감을 공유했다. 경찰의 차벽 앞에 스티커를 붙이는 시민, 전경들이 타고 있는 경찰차에 꽃을 전하는 신부, 시위 후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질풍노도와 같은 자신들의 힘이 정제된 메시지로 결집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그런 행동으로 표출했다. 촛불 시위대 속에서 자주 들렸던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전경도

같은 시민입니다라는 말들은 폭력화로 치닫지 않으려는 경계감, 자기 통제의 작동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외치는 말 대신 작은 소리들의 결집을 표현하고자 했다. 권위적인 말보다는 자유롭고 소통적인 말을 원했다. 실제로 촛불 현장에서는 정치인이나 운동권의 지도부가 발언하는 것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발언을 막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전의 각종 시위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표현들이 종적을 감추었고 노동자 대단결, 민중의 대오, 강력한 투쟁, 적들에 대한 공격 같은 말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일상의 삶에서 묻어나는 말들, 살아 있는 말 그대로의 표현들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말들이 별다른 갈등과 긴장 없이 한 자리에 머물면서 교감하는 현상이 될 수 있었다. 열려진 공간, 누구라도 자신의 말을 하면서 서로의 말을 들어 주는, 그러면서 즐기는 말놀이의 자리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독특한 경험을 구호로, 주장으로, 누리소통망(SNS)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즐겼다.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주장하는 말의 내용은 달랐지만 미묘하게도 하나의 공유되는 인식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국민'이며 공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자의식이었다. 자신들의 의견을 폭력이나 무법으로써가 아닌 정당하게 표명하는 한, 그것을 탄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권리 주체로서의 각성이 가시적으로 공유된 것이었다. 시위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말들 역시 그것을 중심으로 결집되었다.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말은 일상의 용어이기 어렵지만, 사회 교과서에서나 볼 것 같은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슬로건이 된 것은 그만큼 촛불의 경험 이 시원적인 정치 공간을 마련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너도 국민이고 나도 국민이며 우리 모두는 국민이라는 이 말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유되면서

광화문의 모임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 분노하는 격량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방향, 지향, 요구가 담긴 언어의 대화가 된 것이다.

나는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말 앞에서 도도히 흐르는 대하의 힘, 격량의 원초적인 힘을 느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을 규정하고 자부심과 존재감을 재구성하는 힘을 지녔다. 제각각 자신만의 분노, 감정, 요구를 담고 있었지만 이 말을 함께 공유하는 순간 이들은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공유했다. 국민이라는 말의 외침은 살아 있는 주권자의 새로운 자각이고 정치적인 각성이기도 했다. 국민의 등장, 국민으로서의 재인식, 국민이라는 자의식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은 일상 속에서 맛보기는 어려운 경험이었다. 그 말은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을 넘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집합적 명령으로 울려 나왔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직후 터져 나온 ‘우리에게 사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서로의 책임과 공감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각성으로 되살아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생경한 헌법 조문을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최후로 보호받고 의지할 공동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의 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모아진 함성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대변화가 결정되는 순간의 환호성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말을 외치던 그 현장은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이기 이전에 혼란스럽던 자신의 정체감을 재확인하고 소속된 공동체의 성격을 재조명하려는 문화적, 언어적 실천이었다.

성찰, 일상, 그리고 남은 말들

폭우가 잦아들고 빗줄기가 약화되면 물살도 조금씩 유순해진다. 그리고 노도와 같은 격량의 파고도 조금씩 낮아지고 마침내 평소의 유유했던 흐름을 회복한다. 촛불과 함께 격동했던 말들도 마찬가지다. 공공의 장소에서 속에

있던 말들을 마구 풀어놓을 수 있었던 특별한 현장에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한번 열린 말문은 그냥 이전처럼 닫히기보다 스스로와 주변을 향한 성찰과 반성, 각오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진주 지역의 19세 청년이 자유 발언으로 행한 말들은 유튜브(youtube)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내 안의 박근혜를 발견하고 내 옆의 최순실에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자신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답게 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²⁾

이런 말들은 바깥을 향한 비난과 공격이기보다 자기 내면을 향하고 일상 생활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새로운 언어였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남이 단순히 타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상의 잘못된 관행과 생각들을 바꿔 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각오의 말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은 모처럼 신성한 공동체를 확인하는 집합적 의례가 된 셈이었다. 사회학자 벨라(Robert Bellah)의 견해를 빌리면 일종의 시민 종교적 경험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육장에서 듣는 훈계보다도 더 의미 있는 성찰의 장이 되었다.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교육의 효과가 있기를 바랐다는 말들은 그런 점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특별한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이전의 문제들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2) 진주 촛불 집회 19세 청년의 자유 발언, 유튜브(youtube) 영상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슴 속에 답답했던 말들, 하소연하고 싶었던 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정치적인 목표를 중시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평범한 직장인, 여성, 학생, 청년, 아이들, 노인들이 다시 돌아갈 일상은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학자가 ‘광장의 조종과 일상의 우울’이라는 대사로 표현했을 정도로 일상은 여전히 많은 문제, 해결되지 못한 긴장, 불분명한 미래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다양한 사람들, 집단들 나름으로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한다.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은 다음 정권, 새로운 변화에 미루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 기대가 클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정도만큼 일상의 복귀가 순조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촛불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큰 사람들, 자신들의 목소리가 다시 묻히게 되리라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우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거대한 촛불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부각되지 않은 것을 애석해했다. 과거의 사건들은 제대로 밝혀지고 처리되리라 기대할 수 있지만 취업난과 고용 불안,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 그대로였다. 촛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말을 쏟아 냈던 태극기 참석자들은 더더욱 일상으로의 복귀가 힘들었을 터이고 그럴수록 자신을 지켜줄 말들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감과 존재감,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말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분노, 좌절, 수치, 연민, 동정, 회한 등 각자의 감정의 결을 새롭게 조율하는 일도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바깥으로 두드러지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새로운 전망, 주체적 각성이 다져졌음은 주목할 일이다. 아마도 가장 특기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현실을 평가하고자 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순실, 정유라 등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우연히도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여성 비하, 여성 혐오의

말들이 나타났을 때 과감히 정치적 잘못을 젠더(gender)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촛불의 대의 속에 부끄러운 성추행이 숨겨 있음을 폭로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러한 비판은 유명 정치인의 사과를 이끌어 냈고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중단시켰으며 집합적인 반성을 이끌어 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말하기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공적인 공간에서 이 문제가 본격화되는 데 이번 촛불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촛불 집회의 과정에서 등장한 다음과 같은 발언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대통령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여성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조금도 타격받지 않는다. 그러니 여성들이 굳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성 혐오적인 구호로 정의와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은 여성의 생존과 관련된 싸움에는 연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집회는 남성 중심의 질서로 구축된 국가를 남성 중심의 방식으로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맨스플레이일 뿐 여성을 위한 싸움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³⁾

오늘의 ‘미투’ 운동은 현실의 젠더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여성 주체들의 말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갑을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미투’ 운동에 예표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말들이 결집되고 표출되며 격량을 이룰 방식도 다양해질 것이며 개성적인 주체들의 자기 정체성 역시 그런 과정에서 또렷해지고 명료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상의 회복과 함께 광화문에 모였던 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다시 각자의

3) 하승우 외(2017), “광장의 페미니스트, ‘함께’와 ‘우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나영)” 글 속에 실린 ‘바람계곡의 페미니즘’ 누리소통망 글, <11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천, 63쪽.

영역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말문을 열고 말들을 조직하며 말들을 표출하는 과정에 있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이름으로, 학생의 이름으로, 주민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제각각 말하기의 역량이 커질 것이고 그것은 한국인의 일상, 민주적 생활 감각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 일상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광장의 역동성, 내면의 말들을 목청껏 쏟아 낸 걱정, 그 거대한 목소리로 얻어 낸 정치적 성과들은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의 언어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위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어떤 말들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방형 몽골어 웹 대사전 편찬 경과와 차후 과제

성비락(Sainbilegt Dashdorj)

몽골국립대학교 아시아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언어 사전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언어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의미, 주석, 어원, 품사, 다른 말과의 관계 따위를 밝히고 풀이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크게는 백과사전과 어학 사전 그리고 전문용어사전으로 분류한다. 4차 산업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와 말뭉치, 자연 언어 처리와 자동화 등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예전에 사용했던 종이형 사전 형태가 하나의 큰 웹 기반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사전 사용 방식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사전 편찬 주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크게 ‘자동화’와 ‘대중화’라는 두 가지 핵심어로 요약이 가능하다 (배연경, 2016:44)고 할 정도로 사전 편찬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학의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몽골어 사전 편찬 작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글에서는 몽골어 사전 편찬 중 우선 모국어 사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개방형 몽골어 웹 대사전’의 편찬 경과와 차후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2. 역사적 배경

몽골어 사전학 연구 성과에 따르면, 몽골어 사전 편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기 4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¹⁾ 1921년까지 편찬된 사전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한 사전과 종교적 목적으로 편찬한 사전으로 분류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한 사전은 다시 모국어 사전과 다종의 외국어 번역 사전으로 나뉜다. 모국어 사전들은 백과사전과 모국어 대·소사전으로 나뉜다.

백과사전은 주로 갈래(분류) 사전 형태로 편찬되었는데 현대에 최초로 몽골인이 편찬한 사전은 ‘Guchin zurgat toil bichig(36권 사전)’이다. 이 사전은 2종으로, 하나는 푸르브(Purev)의 ‘44권 백과사전’이고 다른 하나는 바트오치르와 미식(Bat-Ochir, Mishig) 등의 몽골 학자들이 1921~1927년에 편찬한 ‘36권 백과사전’이다. 이 백과사전은 19,000여 개 단어를 수록·분류하여 뜻을 풀이하였는데, ‘몽골어와 만주어 사전’과 기타 3개, 4개의 언어 번역 사전들의 기반이 되었다.

모국어 사전들은 표준어 규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방언형과 속어는 수록이 불가능했다. 한때, 활발하게 문자 생활을 하는 몽골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тольтой үсэг(국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라는 의미)’라는 이름이 붙은 단어들만 사용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시기가 있었다(Б. Ринчен, 1964:124). 몽골에서 모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개방형 몽골어 웹 대사전 편찬에 바탕이 된 현대 몽골어 사전의 역사적 배경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원 후 4세기 선비 시대에 출간된 13권 서책 목록이 나오는데 그중 여섯 번째 책이 중국어로 ‘國語雜物名三券 kouo-yu tsa wou-ming san kuan(국어 갈래 사전, 3권)’이다. 이에 대한 소개가 L.Liget, 《Le Tabghatch, un dialecte de la langue Sien-pi, Mongolian studies》, Budapest, 1970, 19-20쪽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Л. Шагдарсүрэн(2017: 152)에서 재인용한다.

첫째, 사전학 연구자들은 사도 바야스갈랑 삭즈(성: Sadoo 부친명: Bayasgalan 이름: Shagj)가 1929년에 편찬한 ‘Eriküy-e kilbar bolγan ĵokiyaγsan mongγol ügen-ü taylburi čindamuni-yin erike(쉽게 찾도록 편찬한 몽골어 소사전)’라는 사전을 현대 모국어 사전의 기저로 본다. 비록 이 사전의 표제어가 16,000여 개에 불과하고, 1994년에 이르러 비로소 출판이 되었으나²⁾ 이 사전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널리 사용되었다. 이 사전은 그전에 분야별 갈래 사전들이 주를 이뤘던 시기의 사전 편찬 방법과는 달리 알파벳순으로 단어를 배열하여 독자들이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18~20세기에 편찬된 여러 사전들을 참고하여 집필했다는 점에서 몽골어 어휘론 연구와 표준 정서법 정착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1966년에 편찬된 야담자브 체벨(부친명: Yadamjav 이름: Tsevel)의 ‘Mongγol helnii товч тайлар тойл(몽골어 풀이 소사전)’이 있다. 이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는 30,000여 개 정도이며, 15년간(1949~1964년)의 노고 끝에 출판되었다. 이 사전의 서론에서 필자는 집필 장식과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이 사전 편찬 목적은 현대 몽골어를 배우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몽골인들의 실생활어,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관련어, 국가 발전에 의해 도입되는 시사어와 과학 용어들을 최대한 포함시키려 했으며 현대 문학과 역사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옛날 단어와 구어를 두루 수집·수록했다.
- 2) 이 사전은 대사전이 아니므로 어휘 수보다는 동의어와 다의어 수록에 집중했으며 지금은 아예 안 쓰게 된 단어나 필요성이 적은 단어 및 지명 등은 제외시켰다.

2) 1994년에 몽골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체벨소드놈(D. Tsevelsodnom), 멘드오요(G. Mend-Oyo) 등이 본 사전 원고를 북경에서 출판한 바 있다(Г. Мэнд-Оёо, 2013).

3) 이 사전 편찬 과정에 여러 사전들, 문학 작품들, 신문과 구어 자료들을 활용했다.

이 사전은 편찬 목적과 방식에서 기존의 사전들과는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 이론과 사전 편찬 방법론에서도 진보가 있었다(Л. Болд, 2008:15). 또한 2008년 몽골어 대사전이 나오기 전까지 대중적인 활용도가 높았다. 2013년에는 그의 아들인 샹드르수렝(Ts. Shagdarsuren) 박사가 이 사전을 증보하여 재출간했다.

셋째, 2008년에 집필이 완성된 ‘몽골어 대사전 5권’은 개방형 몽골어 웹 대사전의 기저가 된 사전이다. 총 표제어가 80,000여 개이며, 12만여 개의 관련어와 용례를 수록한 대사전이다. 이 사전 집필은 193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몽골인민공화국(몽골국의 옛 이름) 총리의 1933년 1월 6일 제4호령에 의해 경서원(지금의 몽골과학아카데미)에서 연구원 7명으로 구성된 모국어 사전 편찬 위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33년부터 1937년까지 4년간 활발하게 이뤄졌던 사전 집필 작업이 당시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단되었다. 앞서 소개한 체벨 선생은 대사전 집필이 지연되는 것과 모국어 사전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소사전부터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였는데, 이것이 몽골어 소사전 편찬 동기이다(Я. Цэвэл, 1966).

이렇게 집필이 지연되었던 몽골어 대사전이 1980년부터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몽골 과학아카데미 선임 연구원 룽상발당(Kh. Luvsanbaldan)이 몽골어 대사전 편찬 방식을 새로 정립하고 몽골과학아카데미 어문연구소 연구원들을 동참시켜 대사전 편찬 작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몽골의 사회 체제가 바뀌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면서 대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되었고, 이후 2005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어졌다.

몽골국 대통령 앵흐바야르(N. Enkhbayar)는 2005년 9월 26일 제46호령을 선포했는데 이는 ‘몽골어 대사전 편찬에 관한 것이었다. 1년 안(2006년)에 몽골어 대사전 편찬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몽골과학아카데미와 그 산하 연구소 소장들, 그리고 관련 대학교 총장들을 대상으로 법령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몽골어 대사전 집필자들이 속도를 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대규모 자료 수집과 인적 자원 구축 및 관련 학술 활동을 전개한 후에야 2008년에 몽골어 대사전 5권이 완간되었다.

앞에서 말한 몽골어 대사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근대 몽골어의 형성이 17세기 중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에 따라 근대 이후 활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 오래 전부터 수집해 온 몽골 주요 문헌 및 문학 작품에서 뽑은 5백만 개의 단어 카드 활용
 - 다종의 몽골어 및 외국어 사전과 전문용어사전 활용
 - 1990년 이후 출간된 4개의 주요 일간지 활용
 -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학 작품과 신문·잡지 및 구어 자료 활용
- 2) 몽골어가 합성어, 연어(連語), 관용어가 풍부함을 고려하여 관련한 용례를 제시하는 데에 주력했다.
- 3) 기존의 몽골어 사전들(B. Shagi, Ya. Tsevel, Ts. Norjin 등)에서 제시한 것과는 달리 동사의 피동형과 사동형, 동사의 상(aspect)을 나타내는 어미가 접속된 형태를 표제어로 수록했는데 단순한 문법적 설명만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뜻풀이를 했다.
- 4) 몽골어 표준 정서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Л. Болд, 2008:17-20).

3. 개방형 몽골어 웹 대사전 편찬 경과

‘개방형 웹 사전’은 그전에 편찬된 사전 중에 정보량이 가장 많고, 민간의 참여로 계속 변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개방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전을 가리킨다(이현주, 2016:82-83).

2014년 12월 3일 몽골 대통령 비서실 부장인 네르구이(B. Nergui)와 몽골 과학아카데미 어문연구소 소장 볼드(L. Bold)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몽골국 대통령 차히아 엘벡도르지(부친명: Tsakhia 이름: Elberdorj)의 구상(initiative)과 대통령 비서실의 지원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간 활발하게 이뤄진 ‘몽골어 웹 대사전’ 편찬 사업의 시작이 되었다.

이 사업의 책임자인 볼드는 몽골과학아카데미 어문연구소와 물리기술 연구소의 정보학과 연구원 11~13명으로 사업팀을 구성하고, 2014년 12월 17일에 개방형 웹 기반 몽골어 대사전 개발 착수 행사를 했다. 협약한 대로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015년 2월 12일에 사업 결과물을 공개했다. 60,000여 개의 표제어 용례, 그리고 80,000여 개의 관련어들(총 14만 개)이 입력된 개방형 웹 사전의 첫 모델(Model)을 선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앞에서 말한 몽골어 대사전 5권을 수정·보완하여 웹 사전으로 전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웹 디자인도 고쳤다. 같은 해 7월과 10월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발음 기능과 표제어 몽골 옛 문자 표기 및 사진과 기타 자료 등을 추가하여 사전의 완성도를 높였고 그 해 12월 28일에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모바일 앱 출시에 성공했고, 2017년에는 국내외로 홍보와 관련 학술 활동을 전개했다.

그림 1 개방형 몽골어 웹 대사전 표지



예를 들어, 검색창에 ‘aab(아버지)’라고 치면 ‘아버지’라는 단어 발음 기능과 함께 몽골 옛 문자 표기, 그리고 3개의 뜻풀이와 예문이 등장한다. 그 밑에 16개의 관련 언어와 관용어, 속담 표현도 해석과 함께 나온다(관련어 이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함).

AAB



ᠠᠭᠠᠨ

1. Өөрийн эцгийг дуудах үг;
2. Төрсөн эцэг – Нарс гэдэг модоор наадмыг минь сийлсэн аав минь дээ хө. ААЗ, аав ээж[хоршоо] (эцэг эх) – Эцэг тэнгэр дэлгэ рэнгүй... В.Инджаннаши. Хөх судар., *аавын чээж (а. Хаахгар, дав лиун зантай хүүхэд буюу залуу – Ахмад хүний дэргэд их үг хэлж болохгүй. Тэгвэл аавын чээж гэж муу хэлнэ. С.Дашдооров. Говийн өндөр; б.[яриа] УАЗ маркийн бага оврын ачааны автомаши

н), *аавын чээж гаргах (нас бага хүүхэд хаахгар, давлиун зан гаргах) – Одоогийн багачууд даан ч настай хүний үг авахгүй, аавын чээж гаргаад байх болчихжээ.Д.Мягмар. Нэгэн байшингий н түүх., *аавын шийр хатаах (аавынхаа ажил үйлсийг үргэлжлүү лэх), *аавдаа адуу манахыг заах ~ аавдаа авгай авахыг заах (а. Мэдээжийн юмыг заах; б. Дэмий, илүү үг ярих), *аавынд орох ~ *аавынд суух ~ *аавынд очих ~ аавын хаалга татах (шоронд орох), аавын бийд хүн тань, агтны бийд газар үз ~ аавын бийд хүнтэй танилц, агтны бийд газар үз [зүйр цэцэн үг] (аливаа ажил үйлийг тусалж зөвлөх хүн буй бололцоотой үед нь амжиж хий гэсэн санаа), аавын сургаал алт, ээжийн сургаал эрдэнэ [зүйр цэцэн үг] (аав ээжийн үг сургамж алт эрдэнээс үнэ цэнэтэ й гэсэн санаа), аавын хүү адилгүй, арван хуруу тэгшгүй [зүйр цэцэн үг] (хүн бүхэн адилгүй, хүний авьяас чадвар ч юм бүхэнд адилгүй гэсэн санаа);

3. Төрсөн эцэгтэй адилтган үзэх хүндтэй хүн: өргөсөн аав (үрчлэн авч өсгөсөн аав),тэжээсэн аав (өөрийн хүүхэд адил дэлгэрэнгүй...

출처: <https://monggoltoli.mn/dictionary/>

현재 개방형 몽골어 웹 사전의 민간 참여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민간 참여 인원: 1,395명(누적 수)
- 민간 참여 추가 표제어: 1,417개
- 민간 참여 추가 표제어 해석: 900여 개

이 웹 사전 편찬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업 팀원이며 몽골과학아카데미 어문연구소 연구원인 푸레브수렐(T. Purevsuren) 박사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 중 현재 웹 사전 접속자 수와 웹 사전 차후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웹 사전 접속자 수: 총 771,495명, 그중 615,375명(79.8%)이 새로운 접속자.
- 전 세계 119개국 2,646개 도시에서 접속(미국,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나 몽골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으로 추정).
- 접속자들의 58%는 컴퓨터, 40%는 휴대 전화, 나머지 2%는 태블릿(tablet)을 활용.
- 10만 명이 모바일 앱을 통해 내려받기 한 상태이다.

(2018년 2월 28일 기준)

개방형 몽골어 웹 사전의 차후 발전 계획

- 1) 사전 응용을 계속해서 확산하되 사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 2)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몇 년 주기로 종이형 대사전 출판을 고려하고 있다.
- 3)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사용자들이 단어의 기본 형태를 착각하거나 정서법 규정을 몰라 입력을 잘못해 단어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불만을 표출하는데 앞으로 조금 틀리게 입력해도 찾고자 하는 단어가 검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하도록 한다.
- 4) 현재 제시된 용례가 완성된 문장 형태가 아닌 줄임 형태의 문장이 많아서 정확한 뜻풀이에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 “The best of Mongolian literature electronic database and software of the 108 Volumes”라는 자체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용례를 완성된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웹 사전의 모든 용례를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 5) 현재 5,000개 정도의 기본 전문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언형과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 전문용어 수를 늘려서 웹 사전의 어휘 수를 늘린다.

4. 차후 과제

이 글에서는 개방형 몽골어 웹 사전의 역사적 배경과 편찬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는 한국의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처럼 편찬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전이다(이현주, 2016:66).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변화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몽골어 웹 사전의 경우 사전 개선 작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우선 민간 참여에서 전문가 투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및 격려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웹 사전의 개선 문제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몽골과학아카데미 연구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을 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인 개방형 웹 사전은 몽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확산도 고려하면서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의 협력 사업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더군다나 웹 사전인 만큼 정보 기술적인 발전과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 빅데이터 및 맞춤형 활용도를 높이면 지금의 표제어 수를 훨씬 능가하는 훌륭한 웹 사전으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 문헌

- 배연경(2016), “사전의 진화와 미래”,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 이현주(2016), “《우리말샘》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 Л. Болд(2008), 《Монгол хэлний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толь》,
Оршил хэсэг,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Б. Ринчен(1964),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элний зүй》, Удир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124-р тал.
- Ц. Шагдарсүрэн(2017), 《Монгол толь бичгийн уламжлал(То
вч түүхэн тойм, анхаарууштай зүйл)》, Эрдэм шинжилг
ээний өгүүллийн чуулган - I боть “Монгол хэл шинжлэ
л, алтай судлал”, 143-213 тал.
- Я. Цэвэл(1966),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Улаанба
атар хот.
-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2008), 《Монгол
хэлний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толь(Таван боть)》, Улаанба
атар хот.
- <https://mongoltoli.mn/dictionary/>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
ы Академи(2016), 《Монгол хэлний их тайлбар толь》.
ulemj.org/page/content/221. Г. Мэнд-Ооёо(2013), 《Монгол хэл
бичгийн сартваахи Шагж》.

국립국어원 소식

1. 2017년 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주요 수정 내용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1	긷다03	%	긷다03「접사」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상태가 심함’의 뜻을 더 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심술긷다}/{앙상긷다}/{웁살 긷다}/{힘긷다}.	표제어 추가
1-2	금쪽같이	%	금쪽갈-이(金——)[—까치] 「부사」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 많은 농민들이 {금쪽같이} 여기던 땅 을 버리고 달아난 까닭도 비로 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문 구, 오자룡>	표제어 추가
1-3	기반하다	%	기반-하다(基盤—) 「동사」 【…에】 바탕이나 토대를 두다. ㉠ 그는 오랜 경험에 {기반하여} 사건을 해결했다./요즘엔 실화에 {기반 한} 영화가 인기다.	표제어 추가
1-4	배춧잎	%	배춧-잎[배:춘남][배춧잎이[배: 춘니피]. 배춧잎만[배:춘남-]] 「명사」 배추의 잎. ㉠ {배춧잎을} 넣고 국을 끓였다./절인 {배춧잎 에} 고기를 써서 먹었다./닭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닭들은 {배춧잎을} 쏘아 먹고 있었다. <<박경리, 토지>>	표제어 추가
1-5	양반다리	%	양반-다리(兩班——)[양:—] 「명사」 =책상다리「1」. ㉠ {양반 다리를} 틀고 앉다/{양반다리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리다.	표제어 추가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6	합격점	%	합격-점(合格點)[- 점]「명사」 시험, 검사, 심사 따위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 ㉠{합격점이} 높다/{합격점을} 받다/이번 시험에서 {합격점을} 얻지 못하면 유급이 된다.	표제어 추가
2-1	만약	「명사」 =만일이(萬一)「1」.	[I]「명사」 =만일이(萬一)[I]「1」. [II]「부사」 =만일이[II].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어야지.	품사 추가
2-2	만일	「명사」 「1」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ㄴ만약·약혹[I]·여혹. 「2」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주 적은 양.	[I]「명사」 「1」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ㄴ만약[I]·약혹[I]·여혹. 「2」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주 적은 양. [II]「부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에. ㄴ만약[II]. ㉠{만일} 밝은 데서 본다고 하면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을 것이다. <이광수, 흙>	품사 추가
2-3	식상하다 01	「동사」 「1」[…에/에게]「1」같은 음식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물리거나 질리다. ㉠우리는 매일 나오는 연예인들에게 {식상해} 있다./주책없이 풍성하고 기름진 우리 집 식탁에 서재호도 이젠 {식상했는지} 피곤한 얼굴을 했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진드기도 피에 「2」『한의학』음식에 의하여 비위가 상하다. 과식을 하거나 익지 않은 음식, 불결한 음식을 먹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나타난다.	[I]「동사」 [1][…에/에게]「1」어떤 음식을 자주 먹어 물리다. ㉠주책없이 풍성하고 기름진 우리 집 식탁에 서재호도 이젠 {식상했는지} 피곤한 얼굴을 했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진드기도 피에 「2」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주려 있던 관객들은 늘 그런 그런 곡예에 {식상해}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마술이 펼쳐지자 경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인호, 지구인>/모두가 꼭 같은 말을 하니깐요. 어지간히 {식상하는군요}. <박경리, 토지>	품사 추가/ 뜻풀이 추가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한의학』음식에 의하여 비위가 상하다. 과식을 하거나 익지 않은 음식, 불결한 음식을 먹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나타난다. [11]「형용사」 「1」어떤 음식을 자주 먹어 물린 상태이다. ㉠ {식상한} 음식/매일 같은 일반찬에 밥을 먹으니 {식상하다}. 「2」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린 상태이다. ㉡ {식상한} 이야기/좋은 노래지만 자주 들으니 {식상하다}.	
3-1	베다02	「1」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른다. ㉠ 낫으로 벼를 {베다}/풀을 {베다}/나무를 {베다}/한칼에 목을 {베어} 버리다/남자들은 샷갓이나 우장을 걸치고 논물을 보러 나갔다 오고, 꼴을 {베고} 나면 종일 할 일이 없었다. <한수산, 유민> 「2」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내다. ㉡ 칼로 살을 {베다}/면도하다가 실수로 턱을 {베어} 피가 났다.	「1」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른다. ㉠ 낫으로 벼를 {베다}/풀을 {베다}/나무를 {베다}/한칼에 목을 {베어} 버리다/남자들은 샷갓이나 우장을 걸치고 논물을 보러 나갔다 오고, 꼴을 {베고} 나면 종일 할 일이 없었다. <한수산, 유민> 「2」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내다. ㉡ 칼로 살을 {베다}/면도하다가 실수로 턱을 {베어} 피가 났다. 「3」이로 음식 따위를 끊거나 자른다. ㉢ 그는 배의 널빤지 위로 떨어진 해삼을 집어 들고 고물로 가서 걸터앉은 채 한 입 톹 {베었다}. <한승원, 폐촌>/현호는 손 시린 생각도 잊고 인절미부터 한입에 {베어} 먹었다. <오유권, 대지의 학대>/사내는 주머니에서 껌질 벗기지 않은 고구마를 꺼내 덩석 {베어} 물었다. <최인호, 지구인>	뜻풀이 추가
3-2	변10	『문학』 옳고 그름이나 참되고 거짓됨을 가릴 목적으로 쓴 한문의 문제.	「1」입장이나 태도 따위를 드러내는 말. ㉠ 작가의 {변}/출마의 {변}. 「2」『문학』 옳고 그름이나 참되고 거짓됨을 가릴 목적으로 쓴 한문의 문제.	뜻풀이 추가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3	분다	「1」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콩이 {분다}/북어포가 물에 {불어} 부드러워지다./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2」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개울물이 {분다}/체중이 {분다}/젓이 {불었다}./재산이 {불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마당에 노적가리가 열둘이더라 도 쌀 한 톨을 초판 쌀로 애바르게 여겨야 살림이 {불는} 것이 고...《송기숙, 암태도》	「1」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콩이 {분다}/북어포가 물에 {불어} 부드러워지다./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2」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개울물이 {분다}/체중이 {분다}/젓이 {불었다}./재산이 {불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마당에 노적가리가 열둘이더라 도 쌀 한 톨을 초판 쌀로 애바르게 여겨야 살림이 {불는} 것이 고...《송기숙, 암태도》 「3」((주로 '몸'을 주어로 하여)) 살이 찐다. ㉠ 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많이 {불었다}./부엌집 마 나님같이 몸이 {불은} 임이네는 눈을 부릅뜨고 용이 얼굴을 똑 바로 쳐다보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 놓았다.《박경리, 토지》/그럴 때면 오래 아직 열세 살밖엔 안 되었다고는 하나, 벌써 톨상스러운 아낙네만큼이나 몸이 {불어} 있는 미륵례가 나와서...《한승원, 폐촌》	뜻풀이 추가
3-4	운행하다 02	【...을】 「1」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니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너무 느린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면} 교통 진행에 방해가 된다. 「2」『천문』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 운동하다.	[1] 【(…을)】 차량 따위가 정해진 도로나 목적지를 오고 가다. ㉠ 금일 부산행 열차는 {운행하지} 않습니다./그의 고향은 두메산골이라 버스가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한다}. ㉡ 고속 도로를 {운행하다}/ 시내버스는 매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한다}. [2] 【(…을)】 「1」차량 따위를 운용하다. ㉠ 고속버스를 {운행하다}/승용차를 {운행하다}. 「2」『천문』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 운동하다. ㉠ 달이 궤도를 {운행하다}.	뜻풀이 추가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5	원17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사무원}/{공무원}/{회사원}/{연구원}.	((일부 명사 뒤에 붙어)) 「1」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사무원}/{공무원}/{연구원}. 「2」 ‘그 조직이나 단체 따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구성원}/{조합원}/{회사원}.	뜻풀이 추가
3-6	허벅지	허벅다리 안쪽의 살이 깊은 곳. ㉠ {허벅지들} 드러내다/{허벅지들} 꼬집다/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렸다./마루에 나와 한쪽 무릎을 세우며 앉는 두식이가 어멈. 허연 {허벅지가} 치마 사이로 드러나 보였다. <<한수산, 유민>>	「1」 허벅다리 안쪽의 살이 깊은 곳. ㉠ 치맛자락이 자꾸만 {허벅지} 사이로 말려 들어갔다. 「2」=허벅다리. ㉡ {허벅지가} 굵다./{허벅지가} 튼실하다.	뜻풀이 추가
4-1	같이	같이	같-이	표제어 수정
4-2	잘못	잘못	잘-못	표제어 수정
5-1	당일	「1」일이 있는 바로 그날. ‘그날’로 순화. ㉠ 즉일. 「2」=오늘[1] 「1」. ‘오늘’로 순화.	일이 있는 바로 그날. ‘그날’로 순화. ㉠ 즉일.	뜻풀이 삭제
6-1	나12	「2」((주로 ‘-나 하다’, ‘-나 싶다’, ‘-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얼굴이 붉어서 난 자네가 술을 {마셨나} 했어./그 애가 많이 {아팠나} 싶었다./저 애가 왜 화가 {났나} 싶어서 내 행동이 {되잖아} 보았다./밖에는 비가 {내리나} 보다./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니 이제 가을이 {되었나} 보다.	「2」((주로 ‘-나 하다’, ‘-나 싶다’, ‘-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얼굴이 붉어서 난 자네가 술을 {마셨나} 했어./그 애가 많이 {아팠나} 싶었다./저 애가 왜 화가 {났나} 싶어서 내 행동이 {되잖아} 보았다./밖에는 비가 {내리나} 보다./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니 이제 가을이 {되었나} 보다./이 일을 {어떡하나}??/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밖에 비가 {오나}?	뜻풀이 수정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6-2	경륜02	「2」천하를 다스림. ≡영륜「2」. 「1」천하 {경륜을} 논할 때는 그의 눈도 삼국정립을 예언하던 공명(孔明)의 혜안처럼 빛났다고 한다.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영륜「2」. 「1」높은 {경륜의} 소유자/{경륜을} 쌓다/천하 {경륜을} 논할 때는 그의 눈도 삼국정립을 예언하던 공명(孔明)의 혜안처럼 빛났다고 한다.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뜻풀이 수정
6-3	다투다	[3]「1」사태가 매우 급하다.	[3]「1」사태가 매우 급박한 상태가 된다.	뜻풀이 수정
6-4	대패01	나무를 곧게 밀어 깎는 연장. 직육면체형의 작고 단단한 나무토막에 직사각형의 납작한 쇠 날이 위에서 아래 바닥까지 비스듬히 박혀 있으며,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나무의 표면을 반반하고 매끄럽게 깎는 데 쓰는 연장. 직육면체형의 작고 단단한 나무토막에 직사각형의 납작한 쇠 날이 위에서 아래 바닥까지 비스듬히 박혀 있으며,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뜻풀이 수정
6-5	무리01	사람이나 짐승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사람이나 짐승, 사물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뜻풀이 수정
6-6	쭈다01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히다.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혀서 죽이나 메주 따위를 만든다.	뜻풀이 수정
6-7	첫인사	사람을 새로 만나서 처음 하는 인사.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편지 따위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	뜻풀이 수정
6-8	끝인사	헤어질 때나 일을 마쳤을 때, 또는 편지에서 마무리 지을 때 하는 인사.	헤어질 때나 일을 마쳤을 때, 또는 편지 따위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 하는 인사.	뜻풀이 수정
7-1	감히	「2」((주로 ‘못’, ‘못 하다’와 함께 쓰여))	「2」((주로 ‘못’, ‘못하다’와 함께 쓰여))	문법정보 수정
7-2	히07	((일부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일부 명사나 부사,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문법정보 수정
8-1	나12	「1」 「1」자네 언제 {떠나나}?/자네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나}?/여보게, 자네가 날 {도와주겠나}?/이 일을 {어떡하나}?/내가 왜 {이러나}?	「1」 「1」자네 언제 {떠나나}?/자네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나}?/여보게, 자네가 날 {도와주겠나}?	용례 수정
8-2	있다01	[1][3] 「1」배가 아팠는데 조금 {있으니} 곧 괜찮아지더라./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1][3] 「1」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용례 수정

2. 2018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공고

2.1. 2018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3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8. 2. 7.	'18. 8. 6.	'18. 11. 5.	
심사 신청 접수	'18. 3. 7. ~ '18. 3. 16.	'18. 9. 5. ~ '18. 9. 14.	'18. 12. 5. ~ '18. 12. 14.	
심사 결과 발표	'18. 4. 27.	'18. 11. 2.	'19. 2. 1.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자격증 교부	'18. 5월 중순	'18. 11월 말	'19. 2월 말	주소지로 등기 우송

2.2. 2018년도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및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일정(3회)

구분	1차 심사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2차 심사 및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심사 계획 공고	'17. 12. 4.	'18. 4. 13.	'18. 6. 2.
심사 신청	'18. 1. 2. ~ '18. 1. 5.	'18. 5. 14. ~ '18. 5. 18.	'18. 7. 2. ~ '18. 7. 6.
1차 심사 결과 발표	'18. 1. 26.	'18. 6. 1.	'18. 7. 27.
재심사 신청	'18. 1. 29. ~ '18. 2. 2.	'18. 6. 4. ~ '18. 6. 8.	'18. 7. 30. ~ '18. 8. 3.
2차 심사 결과 발표(최종)	'18. 2. 23.	'18. 6. 22.	'18. 8. 24.

※ 불가피한 경우 위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매회의 심사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공고

3.1. 2018년도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구분	개인 자격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8. 9. 3.	
심사 신청 접수	'18. 11. 5. ~ '18. 11. 16.	
심사 결과 발표	'18. 12. 14.	
자격증 교부	'19. 1월	주소지로 등기 우송

3.2. 2018년도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일정(2회)

구분	1차 심의	2차 심의
심의 계획 공고	'18. 2. 26.	'18. 9. 17.
심의 신청 접수	'18. 3. 26. ~ '18. 3. 30.	'18. 10. 22. ~ '18. 10. 26.
1차 심의 결과 발표	'18. 4. 20.	'18. 11. 16.
재심의 신청	'18. 4. 23. ~ '18. 4. 27.	'18. 11. 19. ~ '18. 11. 23.
2차 심의 결과 발표(최종)	'18. 5. 11.	'18. 12. 7.

※ 불가피한 경우 위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매회의 심사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립국어원 2017년 4분기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드라이 에이징(dry aging)/웨트 에이징(wet aging)의 다듬은 말: 건식 숙성/습식 숙성
- 블라인드 채용(blind 採用)의 다듬은 말: (정보) 가림 채용
- 스낵 컬처(snack culture)의 다듬은 말: 자투리 문화
- 컨벤션 효과(convention 效果): 행사 효과
- 크래프트 맥주(craft 麥酒)의 다듬은 말: 수제 맥주
- 홈 퍼니싱(home furnishing)의 다듬은 말: 집 꾸미기

‘드라이 에이징(dry aging)’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거꾸로 매달아 숙성시키는 방식이고, ‘웨트 에이징(wet aging)’은 진공 포장을 하여 수분 증발을 차단해 촉촉한 상태로 숙성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각각 ‘건식 숙성’과 ‘습식 숙성’으로 다듬었다. ‘블라인드 채용(blind 採用)’은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응시자의 개인 정보를 배제하고 진행하는 채용 방법이다. 이를 ‘(정보) 가림 채용’으로 다듬었다. ‘스낵 컬처(snack culture)’는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스낵(과자)을 먹듯 5~15분의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이다. 이를 ‘자투리 문화’로 다듬었다. ‘컨벤션 효과(convention 效果)’는 정치 행사 직후의 지지율 상승 현상이다. 이를 ‘행사 효과’로 다듬었다. ‘크래프트 맥주(craft 麥酒)’는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맥주이다. 이를 ‘수제 맥주’로 다듬었다. ‘홈 퍼니싱(home furnishing)’은 가구,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가전제품은 제외)을 활용해 집 안을 꾸미는 것이다. 이를 ‘집 꾸미기’로 다듬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 식품은 최근 **건식 숙성**(←드라이 에이징)과 **습식 숙성**(←웨트 에이징) 기술을 적용한 소고기 판매를 동시에 시작하였다.
- 이번 △△ 기업의 신입 직원 선발 과정에서는 **(정보) 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다양한 선발 방식을 시도하였다.
- 요즘 **자투리 문화**(←스낵 컬처)를 즐기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 우리 지역에서 다음 주 동안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준비하면서 **행사 효과**(←컨벤션 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입 맥주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크래프트 맥주)도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맥주 소비량이 늘고 있다.
-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면서 나만의 **집 꾸미기**(←홈 퍼니싱)와 관련한 실내 장식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5. 국어문화학교 운영 결과 보고

- **원내 국어문화학교**
정규과정: 2회, 190명
교사과정: 1회, 15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일반과정: 69개 기관, 78회, 8,272명
기획과정: 8개 기관, 15회, 785명

6. 2018년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구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회) 참가자 모집

6.1. 교육 개요

- 내용
 - 교육 활동(1~3주 차): 기본 교과(한국어 발음·어휘·문법 교육론 등), 특강(한국어교육 정책 및 교육자료 활용법 등), 현장 학습(문화 체험 등), 특별 활동(국외 한국어 정책 워크숍, 발표 및 토론, 분임별 토의 등)
 - 연구 활동(4~6주 차): 한국어교육(정책) 관련 연구 결과물 작성 및 발표
- 대상: 외국 국적의 한국어교육 전공 및 경력자(재외동포 제외)
- 장소: 국립국어원, 이화여자대학교
- 기간: 3주~6주(6월 말~8월 초), 합숙

6.2. 선발 절차 및 방법

- 선발 절차: 재외 공관 추천→연수생 선발 심사(서류 및 전화 면담)→연수생 선발 통보(4월 말~5월 초)
- 접수 마감: 2018년 3월 30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희망자는 추천서 및 포함 서식을 작성하여 재외 공관에 제출. 이후 재외 공관 서류 검토 후 국립국어원으로 참가자 서류 문서 발송.

7. 세종학당 파견 교원 방문

- 일시/장소: 2018년 1월 5월(금) / 국립국어원 3층 강의실
- 방문자: 홍수민(주멕시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김영지(아이오와시티 세종학당), 이아현(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변여주(주아부다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김참이(주로마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박보은(시안 세종학당), 안현숙(린이 세종학당), 박영훈(파사이 세종학당), 이병민(세종학당재단 교육지원부)
- 주요 내용: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관련 국립국어원 정책 소개,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교육 자료 활용법 안내, ‘세종한국어’ 개정 방향 논의

8.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방문

- 일시/장소: 2018년 2월 14일(수) / 국립국어원 원장실
- 방문자: 이승민(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박희양(해봄재외 동포교육재단 이사장)
- 주요 내용: 국립국어원장에게 감사패 전달, 재외동포 대상 교재 개발 관련 의견 수렴 등

9. 국립국어원-롯데홈쇼핑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립국어원과 롯데홈쇼핑은 2월 22일(목)에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 등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 국립국어원의 각종 교육·연수사업을 통한 롯데홈쇼핑 임직원 대상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공익적 홍보 영상의 롯데홈쇼핑 매체(텔레비전, 온라인 등)를 활용한 홍보 등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합의하고,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통한 교육 실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방송 언어를 비롯한 공공 언어를 개선하여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홈쇼핑 방송 언어를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국립국어원이 홈쇼핑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국어 사용이 타 홈쇼핑 방송으로까지 널리 확대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 국어문화학교 제13회 강사 연수회 개최



- 일시: 2018년 2월 7일(수) ~ 2월 9일(금), 2박 3일(합숙)
- 장소: 춘천 베어스호텔
- 주요 내용: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교수법 전략, 영역별 교수 학습 세미나 및 교수법 공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및 공문서 평가 기준
- 주관: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한길)

11.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11.1. 2017년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 개최

- 일자: 2017년 12월 20일(수)
- 장소: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 38명이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외래 전문용어 정비 계획, 대역 말뭉치의 규모와 방향, 세계문자박물관 콘텐츠 확보 방안 등 2018년 국어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분과	주요 사항
언어정책 분과회의	위원 12명이 모여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2018년부터 추진하는 대규모 말뭉치 구축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말뭉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어문규범 분과회의	위원 14명이 모여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5건에 대한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심의하여 '꺼림직하다, 깨름직하다, 추켜올리다②, 추켜세우다②, 치켜올리다' 등을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국어순화 분과회의	위원 12명이 모여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 16건을 심의하여 '감축운행', '배차간격' 등 10건의 국토부 제출안을 의결하였으며 5건은 국어심의회 권고안으로 보완 요청하고, 1건은 고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11.2. 제136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

- 일자: 2018년 2월 28일(수)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이번 위원회에는 외래어 심의회 위원 14명이 모여 리투아니아의 음악 가명 '그라지니테틸라, 미르가(Gražinytė-Tyla, Mirga)' 등 총 15건의 외래어 표기를 확정하였다.

11.3.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일자: 2018년 2월 6일(화)
- 장소: 국립국어원

이번 위원회에는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 13명이 모여 제2기 위원장으로 안세준(전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위원) 위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새 한국수어사전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11.4. 점자규범정비위원회 개최

- 일자: 2018년 2월 22일(목)
- 장소: 국립국어원

이번 위원회에는 점자규범정비위원회 14명이 모여 제2기 위원장으로 김영일(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한글 및 수학 점자 규정 해설서 자료를 검토하고 음악, 과학 점자 규정 해설서 집필 계획에 대해 토론하였다.

12. 위원회 위촉 현황

12.1. 국어심의회(임기: 2017년 11월 15일 ~ 2019년 11월 14일)

- 언어정책분과 위촉직 위원: 이삼형(한양대 국교과, 분과 위원장), 김선정(계명대 한국문화정보학과), 김중신(수원대 교육대학원 국교과), 민병곤(서울대 국교과), 소강춘(전주대 국교과), 우창현(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과), 윤성희(상명대 소프트웨어학과), 이동은(국민대 국문과), 전은주(부산대 국교과), 최경봉(원광대 국문과, 이상 위원)
- 어문규범분과 위촉직 위원: 채완(동덕여대 국문과, 분과 위원장), 김미형(상명대 한국언어문화학과), 민광준(건국대 일어교육과), 박만규(아주대 불문과), 박한상(홍익대 영어교육과), 배주채(가톨릭대 국문과), 성기영(한국방송), 양명희(중앙대 국문과), 유현경(연세대 국문과), 이문규(경북대 국교과), 정혜승(경인교대 국교과, 이상 위원)
- 국어순화분과 위촉직 위원: 서정목(서강대 국문과, 분과 위원장 및 국어 심의회 위원장), 강희숙(조선대 국문과), 김병훈(교통방송), 김정훈(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김진형(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김혜림(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박용찬(대구대 국교과),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정경희(라이온브리지코리아), 조태린(연세대 국문과, 이상 위원)

12.2. 말다듬기위원회(임기: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위원: 강재형(문화방송), 김윤희(제천 남당초등학교), 김은영(방송 작가), 김창섭(서울대 국문과), 김태일(네이버 다국어처리연구실), 김현정(매일경제), 류지철(문화일보),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오은혜(행신고등학교), 윤종수(저술가), 이경우(서울신문), 이광복(한국문인협회), 이병희(에스비

에스), 이찬희(한글문화연대), 정경희(번역가), 정철(카카오), 한상권(한국방송), 김문오(공공언어과장)

- 신규 위촉: 김현정, 류지철, 오은혜, 이병희, 이찬희, 한상권

13. 인사이동

13.1. 퇴직

- 방지수(한시임기제 6호): 근무 기간 만료(2월 10일)

13.2. 전보

- 이윤미(학예연구사): 공공언어과 → 교육연수과(1월 2일)
- 김성은(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연수과(1월 17일)
- 김아영(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2월 1일)
- 이유원(학예연구사): 문화체육관광부 → 언어정보과(2월 1일)
- 강병구(일반고위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연수부(2월 12일)
- 김성관(행정주사):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2월 26일)

13.3. 복직

- 구지민(학예연구관): 교육연수과(2월 10일)

14. 2017년 연구 용역 목록

용역 사업명	연구 책임자/소속	사업 담당자
2017년 국어정책 관련 자료 및 연보 구축	장요한/계명대학교	이하얀
2017년 방송언어 개선 사업	원영신/한국스포츠키미디어학회	김미현
2017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	소강준/전주대학교	홍혜진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	김미선/중앙대학교	이윤미
2017년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이대섭/한국농아인협회	황용주
2017년 한국어 전문용어 재분류	이지연/연세대학교	위진
공공언어 감수 지원 종합 자료 구축	김일환/고려대학교	이윤미
공공용어 번역(영중일) 수용성 연구 -주요 한식명을 중심으로-	김한식/한국외국어대학교	박미영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	민병곤/서울대학교	이기연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를 위한 기초 연구 사업	이삼형/한양대학교	이기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김중섭/경희대학교	김혜민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신종진/한양대학교	박선
농민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최상배/공주대학교	남미정
농민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박광철/나사렛대학교	남미정
다문화가정 대상 교재 개발	이선웅/경희대학교	정혜선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나윤정/(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김형배
언어를 통해 청소년의 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대희/원광대학교	방지수
재외동포 아동용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김경령/숙명여자대학교	김혜민
점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김영일/조선대학교	이수미
점자 표기 기초 조사	오윤진/(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수미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정혜승/경인교육대학교	방지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보완 연구	임지룡/경북대학교	최정도

응역 사업명	연구 책임자/소속	사업 담당자
표준국어대사전 보안을 위한 표제어 정비 연구	김한샘/연세대학교	최정도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이수미
한국수어 문화 정보 해설 영상 구축	이상용/강원도농아인협회	유은숙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강창욱/강남대학교	이현화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	윤병천/나사렛대학교	남미정
한국수어사전 수어 뜻풀이와 용례 구축 및 정비	이준우/강남대학교	이현화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및 교재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이보라미
한국어 학습자 언어자료(말뭉치) 구축	강현화/연세대학교	김수현
한국어(KSL) 교재 개발 기초 연구	심혜령/배재대학교	정혜선